



“이번엔 호텔” 이부진 ‘글로벌 신라’ 날개 2



최재호 대표 “명함지도로 비즈니스 길 열어요” 21

코스피 (15일) **2097.18** (+32.66P)
코스닥 **690.39** (+7.30P)
환율 (달러당 원화) **1120.70** (-2.30원)
금리 (국고채 3년물) **1.797%**

‘역전세난’ 현실로... 보증금 못 준 집주인 작년 17배나 늘었다

〈전세보증 대위변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19兆 2배 늘어 실제 집행 건수 20배 가까이 증가 과대공급 여파 전셋값 하락 지속

	실적		대위변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7년	4만 3918기	9조 4931억 원	167기	34억 원
2018년	8만 9350기	19조 364억 원	285기	583억 원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난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8만9350가구, 19조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4만3918가구, 9조4931억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보증이 실제로 집행된 건수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는 285가구, 58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167가구, 34억 원보다 17배 증가한 규모다. 이는 집값, 전셋값 하락이 두드러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줘야 하는데 집값, 전셋값이 떨어지다 보니 제때 돈을 못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분석한 지난해 전세가격 변동률은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은 2017년 0.6%에서 지난해 마이너스(-)1.8%로 나타났다. 서울도 같은 기간 2.0%에서 0.3%로 하락했다.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도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변

동률은 2017년 0.6%에서 지난해 -2.9%로 하락폭을 확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0.0%로 떨어졌다.

한국감정원은 전세가격의 하락 원인으로 아파트 공급 확대에 따른 전세 공급 증가, 지역 산업 침체에 따른 과대 공급 상황 지속을 꼽았다. 문제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세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전셋값 변동률은 -1.42%로 예상했다. 예상치 못한 호재가 발생하더라도 상승세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 분석했다.

한국감정원은 최근 2019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향후 2년의 전세가격도 1.72% 하락할 것으로 예측돼 당분간 전세시장은 하락세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예측 오차범위 ±10% 수준에서도 -3.34~0.08%로 추정한다”고 내다봤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주간 현황에서도 전셋값의 상승 전환은 찾기 힘들다. 이달 들어 첫째 주, 둘째 주 서울 전셋값은 각각 -0.03%, -0.08%로 하락했다. 둘째 주의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가 하락했다. 전셋값이 오른 곳은 구로·양천·관악구 단 3곳뿐이었다. 서지희 기자 jhsseo@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 회장의 말을 듣고 있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희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시스

文 “좋은 일자리 창출 최대 현안” 경제계 “규제가 걸림돌” 쓴소리

文대통령·기업인 타운홀 미팅
경제회복 위한 적극적 투자 당부
최태원 “혁신성장, 실패 용납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용과 투자는 기업의 성장과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일자리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연 자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라며

“300인 이상 대기업이 우리나라 설비투자의 약 85%를 차지하는데 주요 기업이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을 위해 꾸준히 투자해 주셨지만, 작년 2분기부터 전체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해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이어 “기업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올해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올해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아는데, 정부 전담 지원반을 가동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협력업체에 대한 개발 이익 조기 지급, 상생결제 확대, 자금지원, 원천기술과 인력지원, 환경문제에 함께 책임지는 모습은 국민과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신뢰를 가질 좋은 계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큰 흐름과 전환을 이끌어 왔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올해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경제계 인사들은 개인정보 규제 등 각종 규제 해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실패가 용납돼야 하고 비용 문제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나 규제 샌드박스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한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중태 퍼시스 회장은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를 입증하게 하고, 입중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카카오 카풀’ 결국 중단

택시업계 “환영...서비스 전면 백지화해야”

카카오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공식 중단했다. 택시단체에서는 대화의 조건으로 카풀 중단을 요구해 온 만큼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다른 카풀앱의 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해 원만한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범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나갈 것”이라면서 “대화에는 어떤 전제도 없으며, 서비스 출시를 백지화할 수도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택시단체와 카풀 서비스 관련 내용을 협

상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택시단체는 대화 자체도 거부한 채 반대 의지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번 카카오의 시범 서비스 중단 결정은 택시업계를 사회적 대화의 기구로 참여시켜 대화만이라도 성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택시업계에서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카풀 서비스 전면 중단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해와 이달 택시 운전기사가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며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택시단체 관계자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다만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이 아닌, 서비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SK, ‘AI 얼굴인식’ 중소기업 메그비 투자

2017년 C라운드 펀딩 참여
4차 산업혁명 대응 투자 속도
메그비는 홍콩중시 IPO 추진

SK그룹이 중국 3대 안면인식 기술회사인 ‘메그비(Megvii)’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메그비는 홍콩 중시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SK그룹이 투자 ‘잭팟’을 터뜨릴지 주목된다.

15일 SK그룹에 따르면 중국 현지 지주사 SK차이나가 2017년 10월 메그비가 진행한 4억6000만 달러(5154억 원) 규모의 C라운드 펀딩에 참여한 것으로 뒤늦게 확

인됐다. 당시 C라운드 펀딩에는 SK차이나를 비롯해 알리바바의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과 폭스콘 기술 그룹(Foxconn Technology Group) 등이 참여했다.

SK그룹 관계자는 “SK차이나에서 투자한 것은 맞다”며 “AI(인공지능) 분야의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메그비는 2011년 설립된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 회사로 ‘페이스+’라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기업가치 10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는 알리바바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에 기술을 적용하며, 아이폰 제조사인 폭스콘을 비롯해 오포, 비보 등 현지

스마트폰 제조사도 고객사로 두고 있다.

메그비의 안면인식 기술은 최근 중국 경찰의 용의자 검거는 물론 중국 공안국의 ‘쉐량(雪亮)’(대중감시 네트워크) 공정에도 적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정부 사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메그비가 홍콩 중시에 상장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SK그룹의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

SK그룹은 SK차이나를 통해 현지 AI, 헬스케어, 신에너지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투자를 검토,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벤처캐피털(VC)인 레전드캐피털이 조성한 6억 달러(6790억 원) 규모의 펀드에 투자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호텔신라 사장〉

면세점 이어 호텔... 이부진 '글로벌 신라' 날개 편다

베트남 '신라 모노그램' 연내 오픈 현지 위탁경영 통해 위험 최소화 사업간 해외 프로모션 등 시너지



“이번엔 호텔이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가 면세점에 이어 호텔로 보폭을 넓혔다. 호텔신라는 위탁경영 방식으로 베트남 다낭에 ‘신라 모노그램 베트남 다낭’을 연내에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위탁경영은 호텔 소유주가 호텔경영 노하우가 있는 업체에 운영을 대행시키는 방식으로 아코르그룹, 힐튼 등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이 주로 진출해 있다. 호텔신라가 위탁경영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한 것은 글로벌 호텔 체인 수준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만하다. 호텔신라는 다낭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 미국, 중국 등 해외 10여 개국으로 진출 국가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1년에는 역시 위탁경영 방식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새너제이에 200여 개 객실을 갖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도 문을 연다. 위탁경영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배경은 해외 사업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지 매입과 호텔 건설 등의 비용 부담 없이 ‘경영 안정화’를 통해 수익을 확

보할 수 있는 것이 위탁경영의 장점이다. 그동안 호텔신라의 해외사업은 면세점 위주였지만 호텔까지 추가될 경우 사업 간 시너지도 기대된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면세점 해외 진출로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섰고 호텔사업까지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기업다운 면모를 과시하게 됐다”며 “기존 해외면세점과 호텔이 같은 지역에 들어설 경우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해외사업 강화는 이부진 사장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다. 호텔신라는 지난해 매 분기 실적마다 이 사장 취임 이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호텔신라의 3분기 매출 누적액은 3조5208억 원, 영업이익은 1816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2%, 215.5% 증가한 수치다. 금융투자업계가 전망하는 호텔신

라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 4조6000억 원대, 영업이익 2000억 원대다. ‘신라’라는 이름을 내걸고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신라 모노그램 베트남 다낭’은 베트남 중부의 광남성 동부해안 농녹비치에 위치했으며 지상 9층 건물에 총 300여 개 객실을 갖출 예정이다. 호텔 앞에 조성된 해변을 조망할 수 있는 레스토랑과 바, 야외 수영장 등의 부대시설도 마련된다. 객실 타입은 스탠더드, 주니어 스위트, 그랜드 스위트 룸 등 세 가지 타입으로 다양한 호텔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에서는 이 사장의 면세점 글로벌 성과가 올해로 개관 40주년을 맞는 호텔에서도 재현될지 주목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2014년 싱가포르 창이공항에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홍콩 첵랍콕 공항과 싱가포르 공항, 태국 푸켓 시내 면세점, 일본 도쿄 시내 면세점 등 해외사업장을 운영 중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상직 “스타트업을 중견기업으로”... 中企 혁신성장 ‘통 큰 투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스케일업 금융,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확대하는 등 올해 벤처기업을 만들고 키우는 데 자금과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상직(사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5일 서울 목동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취임한 이후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씨앗을 충분히 뿌렸다고 생각하는 만큼 올해는 한층 더 속도감 있고 도움되는 지원을 통해 수확을 거두는 한 해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중진공은 스타트업들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스케일업 금융 자금으로 5000억 원을 확보해 지원한다는 목표다.

스케일업 자금 5000억 지원 등 中企 진흥자금 8조 상반기 집행 “올해 수확 거두는 한 해 될 것”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과 같은 후순위채권 인수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이사장은 “작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활용해 1000억 원 정도를 만들었고 올해 5000억 원까지 조성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상반기에 모든 자금을 집행해 기업 현장에 도움을 빨리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또 제조업 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을 작년 3300억 원에서 올해 5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중진자금 약 8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유니콘 기업 육성도 중점 추진 과제다. 국내 유니콘 기업 중 하나인 핀테크 업체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중진공의 청년창업사관학교 1기 기업이다. 이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기존 5곳에서 작년 17곳으로 증설했다”며

“목동, 금천 등에 혁신성장밸리를 추진해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연계해 토스와 같은 예비 유니콘 기업을 지역당 1개씩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현장 근접 지원도 주요 사업 계획 중 하나다. 중진공은 우선 6~7월경에 미국 시애틀에 글로벌혁신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중국 중관춘, 인도 뉴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을 글로벌혁신센터 최종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100개 기업을 진출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진공은 일자리창출촉진 자금으로 3000억 원을 신설, 고용 규모

를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핀테크와 전기차 등 분야에 도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발전특구법을 활용한 신산업 기반도 갖추기로 했다. 이 이사장은 나아가 북한 내륙 진출 기업과 개성공단 재개 지원, 평양혁신성장센터 설치 등 남북경협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진공은 4월부터 기관명도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변경한다. 이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에 맞춰 중소벤처진흥공단으로 명칭을 통일해 벤처기업 고객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유한양행

광고심의의뢰: 2018-1465-000402

안에서는, 육체피로!

밖에서는, 눈의피로!

안에서는, 육체피로!

밖에서는, 눈의피로!

피로회복의 더블효과 온 가족이 느껴보세요!

베콤씨[®] 정

NEW 휴대가 간편한 PTP포장 출시

육체피로 | 신경통 | 눈의피로 | 기미·주근깨

文 “반도체 어렵다던데”... JY “이제부터 진짜 실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무슨 대화 나뉘나

이 부회장 “연구소 방문해 달라”
문 대통령 “언제든 가겠다” 화답
대기업·중견기업 지원의사 밝혀

현정은 회장에 “속도를 내겠다”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현대기아차·LG·SK·롯데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대기업·중견기업인 128명을 청와대에 초청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혁신 성장 등을 당부하며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중견기업의 고용과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건의가 규제혁신에 집중된 만큼, 정부의 산업정책 역시 과감한 규제개혁을 포함한 혁신성장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에 걸쳐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사회로 사전에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경제계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선 기업과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은 “지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에서 빠지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IoT(사물인터넷)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AI 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서 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자신의 지론인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며 “혁신성장의 또 다른 대상 하나가 사회적 경제”라며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원칙 말고, 바로 국민에게 디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해결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소신 발언이다.

특히 최 회장은 “혁신성장은 기본적으로 실패가 용납돼야 하고 비용 문제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규제완화나 규제 샌드박스라는 안에 이 철학이 깔리지 않으면 솔직히 규제가 아무리 적더라도 이것이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삼성·현대기아차·LG 등 4대 그룹 총수, 강호갑 중견기업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방준혁 넷마블 의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영빈관-본관 소나무길~소정원-녹지원으로 이뤄진 코

스로 경내를 산책하며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잖아 어떻게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좋지는 않지만 이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태원 회장은 “삼성이 이런 소리 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자 이 부회장이 최 회장 어깨를 툭 치며 “이런 영업 비밀을 말해 버렸네”라고 말해 주위에 웃음이 터졌다.

문 대통령이 “반도체 비메모리 쪽으로 진출은 어떻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결국 집중과 선택의 문제다.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화에서 눈길을 끈 부분은 문 대통령이 현정은 회장에게 “속도를 내겠다”고 말해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외부 일정 때문에 네이버 한성숙 대표의 불참했는데 임원 대리 참석도 못한 이유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민 기자 lawsdm@

“이젠 회동 말고 행동을...”

재계 반응

정부 ‘親기업 행보’ 환영하지만
최저임금·주52시간제 수정 등
기업 체감할 실질적 정책 원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통해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과 대화를 나눈 데 대해 재계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귀를 닫고 있었던 정권 초기와 달리 대통령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일단 환영할 만하다”며 “올해 경제 상황이 위기인 만큼 기업에 힘을 실어주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A그룹 고위관계자도 “대통령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시작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만남을 계기로 노조와 시민단체로 기울어진 경제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쇼통’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경영 활동의 숨통을 트게 할 가시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칫 ‘보여주기식 회동’으로 끝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경계심이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결국 바뀐 건 없었다”며 “기업 총수들을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만 기업인들을 대표

하는 경제단체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잘 들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고 조언했다. 지난해 말 경총과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 주휴수당에 관계된 근로시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공동 성명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유일하게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6개월로 가닥이 잡혔다. 재계가 요구하는 1년과는 거리가 있다. 이외 공영경제 등 4차산업과 관련된 규제 완화도 지난 한 해 경제계에서 강도 높게 요구해 왔지만, 정책 반응이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계는 정부와 여당이 이번 만남을 계기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등 상법 개정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경쟁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시행재검토 여부도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정부의 실행력이다. 최태원 SK 회장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질문을 하며 “솔직히 지난해에 이 말씀을 거의 2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송영록 기자 syr@

유기농 녹차가 함유된 메타그린으로 건강 더하기

입은 즐겁게
몸은 가볍게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유기농 녹차에서 얻은 카테킨을 함유한 메타그린 이제, 하루 한 번 메타그린을 챙겨보세요
체지방 감소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무너진 신진대사를 바로잡아줍니다

제품상담 구매문의 080-023-5454
아모레퍼시픽 카운셀러, www.amorepacificmall.com

건강한 아름다움의 시작
VITALBEAUTIE

〈민주당 의원〉

송영길 “신한울 3·4호기 공론화 필요”… 靑에 반기

“공론화위 거쳐 추가 논의 필요 없다”는 청와대 입장 반박
“생산단가 높은 재생에너지 의존 시 전기료 인상 불가피”
“미세먼지 유발 火電 폐기부터”… 靑 “원전·미세먼지 무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했던 송영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서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공론화를 거쳐 추가 논의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도 반박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

은 아니지만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 “미세먼지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노후된 화력발전소를 조기 퇴출시키고 오래된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켜 신한울 3·4호기를 스와프해 건설하면 원자력발전 확대가 아니면서 신규 원전이므로 안정성은 강화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화력발전에너지지를 재생에너



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며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 에너지 믹스·균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 의제로 집중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날 밝힌 청와대 입장에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의 사태 수습에 여론 중진이 반기를 든 것은 처음으로 미묘한 파장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000억 원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며 “신고리 5·6호기 이외의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원전과 미세먼지는 관련이 없다는 팩트체크를 여러 언론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김의겸 대변인)”며 송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친환경이 아니라 반(反)환경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지속을 지적하는 서명이 현재 30만 명을 넘었다”며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저지하는 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신한울 3, 4호기 재개부터 공론화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의원의 소신 발언에 지지를 보낸다. 이러한 소신을 대통령 정책에 반(反)하더라도 밝힐 수 있는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성공한다”고 힘을 실었다.

김하늬 기자 honey@

황교안, 당권 도전 시사 “나라 상황 총체적 난국”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5일 “문재인 정부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야당이 되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입당식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이라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는 성급한 정책들이 경제도, 안보도, 사회도 모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으로 국민들이 심려를 갖게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정부 국정 전반에 농단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잘못된 부분과 잘한 부분을 그대로 평가해야지, 모든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재단하는 것은 옳은 평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월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민들께서 바라는 점을 충분히 잘 듣고 그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결정하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황교안(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황 전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입당원서를 제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story@

공기업서 ‘김용균 사태’ 발생하면 기관장 문책

文 대통령 수보회의서 지시

공공기관에서 ‘김용균 사태’ 발생하면 기관장 문책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태안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관장이 문책을 당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이 자기 일처럼 자기 지식 돌보듯 직원을 돌보

도록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못 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줘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까지의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서 차이를 두는 정도였는데 그해서는 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국방백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北 대량살상무기, 한반도 평화·안정에 위협”

우리나라의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삭제됐다. 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는 점이다. 백서

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적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2016 국방백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공격, 테러 위협


을 언급하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기조다. 백서는 “남과 북은 군사적 대치와 화해·협력의 관계를 반복해 왔으나,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는 논란을 의식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

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또한 그간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사라졌다. 대신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킬체인과 KMPR 등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적응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연구개발
장애인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미세먼지 배출 주범' 노후 석탄화력 올해 3곳 폐기

영동 2호기 가동 중단하고 석탄→우드펠릿 연료설비 전환
12월에 삼천포 1·2호기 폐기... 나머지 4곳 2022년 중단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올해 석탄화력발전소 3기가 폐기된다.

최근 영동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올해 12월에 삼천포 1·2호기까지 문을 닫으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4기만 남게 된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남동발전은 이달 200MW(메가와트)급 석탄화력발전소인 영동 2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는 영동 2호기의 발전 연료를 석탄에서 순수 목재를 가공한 친환경 고품질 연료인 우드펠릿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영동 2호기는 1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때마다 0.170kg의 초미세먼지(PM2.5)를 배출했는데 연료 전환 공사가 완료되면 초미세먼지가 0.083kg 수준으로 51.2%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12월에는 경남 고성 1·2호기가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노후 석탄화력은 4기로 줄어든다.

나머지 호남 1·2호기와 보령 1·2호기는

각각 2021년 1월, 2022년 5월에 가동이 중단된다.

정부는 2016년 7월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통해 3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 10기를 2025년까지 폐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기 기한이 2022년으로 3년 앞당겨졌다.

지금까지 총 노후 석탄화력 10기 중 영동 1·2호기, 서천 1·2호기 등 4기가 사라지고 6기가 남았다. 강원 1호기와 충남의 서천 1·2호기는 2017년에 문을 닫았다.

석탄화력은 신재생에너지나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등 다른 주요 에너지원보다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며 특히 오래된 발전소일수록 배출량이 많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노후 석탄화력인 호남 1·2호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MWh당 1.908kg인 반면 LNG 발전소의 평균 배출량은 0.158kg 수준이다. 최신 LNG 발전소는 0.087kg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금융사 '방패효과' 노리고 금감원 출신 영입?

KDI "제재받을 확률 16.4%↓"
금융사 금융당국 출신 임원 67%
재무적 위험관리 개선은 없어
'부당한 유착관계' 작용 가능성

민간 금융사가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하면 단기적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무적 위험관리 성과의 개선은 없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발간한 'KDI 포커스' 제94호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기영·황순주 연구위원)'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6년 중

금융회사 재직 임원의 16.3%가 공직자 출신이고 이들 중 67.2%가 금융당국 출신이었다. 여기에서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위험관리 지표인 위험가중자산 대비 당기순이익률(RORWA)은 금융당국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한국은행 출신 인사를 영입한 경우에만 채용 이후 2분기에 표본 평균값(6.53%) 대비 3.94%포인트(P)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임원 채용 이후 1분기에 금융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확률은 금감원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채용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16.4% 낮았다. 금감원 출신 인사를 채용했을 때 위험관리 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제재 확률을 낮추는 효과도 단기에 그친다는 점에서 금감원 출신 인사 채용에 따른 효과는 '부당공동행위' 가설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이기영 연구위원은 "제재받을 확률이 기업 체질이 좋아져서 떨어졌다고 하려면 제재 확률이 하락하는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민간 금융사가 금융당국, 특히 금감원 출신 인사를 채용했을 때 부정적 효과만 부각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미국형 분산 감독체계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선 금융사 관리·감독권이 금감원에 쏠려 금감원 출신 인사가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사 간 부당한 유착관계의 고리가 될 소지가 있어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활짝 웃은' 코스피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과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 각각 2090대와 690선을 회복한 15일 서울 중구 KEB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연한뉴스

韓,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0.03P↓... 외환위기때와 비슷

향후 경기에 먹구름이 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한국의 경기선행지수(CLI)가 20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만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와 비슷한 상황이다.

14일(현지시간)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11월 CLI는 99.19로 전월 99.22보다 0.03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3월 101.0으로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다.

앞서 IMF 사태 직후였던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연속 하락한 바 있다.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통상 100을 경기 확장

의 기준선으로 삼는다.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밑돈 것은 올해 4월부터 8개월째다.

통계청 지표에서도 국내 경기의 둔화세는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광공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의 부진으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수출도 위축되는 등 경기 둔화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수출 여건도 점차 악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국민연금 수급액 월평균 5690원 ↑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올해 월평균 수급액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5690원 오른다. 또 물가 변동률과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지난해 물가 변동률인 1.5%를 반영,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인상된다. 20년 이상 가입자들은 평균 1만3670원 오른 92만5039원을 받게 된다. 같은 기준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385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오른다.

아울러 물가 변동률, A값 및 소득 재평가율을 반영하는 시기가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된다. 인상이 1월부터 지급되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잡(JOB)이 취업지원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짙어진 '노딜 브렉시트'...꼬이는 '플랜 B'

영국 하원 '승인 투표' 돌입 합의안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재투표·탈퇴 연기·조기 총선 등 메이 총리 대응책 '예측 불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인 브렉시트(Brexit)가 운명의 날을 맞이한 가운데 영국 하원 투표 결과와 그 이후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BBC방송은 14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정권과 EU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 표결 이후 벌어질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하원은 15일 오후 7시, 한국시간으로는 16일 오전 4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EU와 영국은 협상을 시작한 지 약 17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최종 탈퇴 협정문을 도출했으며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어떤 관계를 구축할지, 내용을 담은 '미래 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이들 합의안은 영국과 EU 의회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합의안이 의회 관문을 넘으려면 하원 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투표는 3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탈퇴하는 최악의 사태인 '노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합의안이 통과되면 이행법률 심의를 거쳐 탈퇴협정 정식 비준동의 절차가 진행된다. 비준동의는 21회기일 내 반대 결의가 없으면 자동 통과된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과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합의안에 거부감을 보여 가결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U 잔류에서 완전한 탈퇴에 이르기까지 합의안을 반대하는 이유도 제각각이어서 표결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수당 내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은 합의안이 영국과 EU의 관계를 너무

브렉시트 시나리오
(1월 15일 영국 하원, 정부와 EU의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가결시

- 영국: 이행법률 심의 → 탈퇴협정 정식 비준동의 절차 (21회기일 내 반대 없으면 자동 통과)
- EU: EU의회 투표 → EU 회원국 의회 승인(20개국 이상 동의)
- 3월 29일 영국, EU 공식 탈퇴 (2020년 12월까지 전환기)

부결시 (경우의 수)

- ① 영국 정부 재협상(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 ② 정부 불신임안 통과 → 조기총선 → 재협상
- ③ 제2브렉시트 국민투표 → 결과에 따라 EU 잔류할 수도
- ④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부와 유럽연합(EU)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를 앞둔 14일(현지시간) 깃발과 플래카드를 든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가 런던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의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한 만큼 향후 영국의 정국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런던/신화연합뉴스

가깝게 유지하는 방향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U 잔류파나 기타 합의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합의안이 모호하다는 인식을 보인다고 BBC는 전했다.

하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면 메이 정부는 3개월 이내 이르면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 소식통에 따르면 플랜 B를 정부에 요구한 것은 제2국민투표를 노리는 EU 잔류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과반수를 확보할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다시 국민이 심판하게 한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메이 총리의 최측근조차 그가 염두에 둔 플랜 B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

다. 다만 BBC는 메이 총리가 EU와 다시 협상하거나 지금과는 다른 합의안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딜 브렉시트나 제2국민투표, 브렉시트 연기 등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전히 메이 총리는 지금의 합의안이 경제를 파괴하지 않고 2016년 6월 실시한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나타난 '민(民意)'을 반영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브렉시트는 여당인 보수당은 물론 제1야당 노동당도 분열시키고 있다. 노동당 의원 대부분은 EU 잔류와 제2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EU 회의론자인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EU

를 떠나도 관세동맹 안에는 남는 부분적인 브렉시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코빈 대표는 전날 BBC에 출연해 "합의안이 부결되면 조기 총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3월 말 브렉시트 시한이 다가오는 중 정국의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BBC는 브렉시트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2년 반이 넘는 기간 의원들은 브렉시트 형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1945년 이후 가장 심각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트럼프, 무역전쟁 끝내라” 성토장 된 ‘북미 오토쇼’

글로벌 자동차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역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4일(현지시간) 개막한 북미 오토쇼에 집결한 CEO들은 미국 정부와 의회에 무역 전쟁과 연방정부 섀다운(일시적 업무중지)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일본 닛케이아시아 리뷰가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3월 초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현재 10%에서 25%로 높이는 등 무역 전쟁이 더욱 격화한다.

또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멕시코, 캐나다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체 GAC는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미국 시장 진출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GAC는 미국 자동차 시장 진출 첫 중국 브랜드를 목표로 하는데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마이크 맨리 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FCA) CEO는 이날 오토쇼에서 기자들에게 “섀다운에 새 픽업트럭 모델들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며 “트럭은 자사에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차량이다. 섀다운이 빨리 해결될수록 좋다”고 호소했다.

일본 도요타자동차 북미법인의 밥 카터 판매 담당 부사장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도요타 차량의 96%가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높은 관세비용으로 가격을 세 차례나 올려야 했다”며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대당 평균 600달러 올라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마크 로이스 제너럴모터스(GM) 사장은 “역풍이 불고 있다”고 탄탄하면서 “이런 역풍을 상쇄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www.childfund.or.kr

자신을 노래!
자신을 노래!
얼마나 즐겁게!

놀이를
다시 보자!

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볼 때입니다**

후원문의 1588-1940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놀이 환경개선과 놀 권리 증진 사업을 통해 놀이의 가치를 다시 보게 만듭니다.



열정가득 청년의 꿈,

KB와 손잡고 날아오르다

끝없이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기회가 많아지도록
포기를 모르는 대한민국 청년의 꿈이 날아오르는 그날까지
KB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꿈, KB와 함께 이룬다] Dreaming Job KB Dream's Coming Project

대한민국의 리딩금융그룹으로서 모든 국민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01 사회적 책임 02 일자리 창출 03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KB가 우리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KB굿잡 취업박람회"를 확대 개최하여 5년간 1만7천여명의 일자리를 연결하고,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직·간접 투자 확대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일으켜 예비 취업자가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DGB금융 파벌 싸움 '회장-행장 겸직' 갈등 키웠다

대구銀 임추위 18일로 연기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18일로 연기됐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직하려 하면서 내부 파벌 문제가 불거져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대구은행 임추위는 18일 오후 4시로 미뤄졌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외부 여러 의견을 청취·수렴하기 위해 연기했다"고 했다.

DGB금융 자회사최고경영자추천후보위원회(자추위)가 11일 김 회장을 대구은행장 후보로 추천하자 안팎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DGB금융 자추위는 "대구은행에서 추천한 후보자 2명 등 6~8명의 역량과 은행장으로서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결과 채용비리, 비자금, 펀드 손실보전 관련 등으로 마땅한 후보자를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대구은행 일부 경영진과 제2노조는 강

출신학교 따라 '신·구 라인' 대립 "김태오 회장, 직책 분리 미이행" 일부 경영진·제2노조 강력 반발

DGB, 대구銀 주식 100% 보유 겸직 부결 땀 주주권 행사 가능성

당국 "개입 권한 없어 지켜볼 것"

하게 반발했다. 김 회장이 취임 뒤 수차례 강조했던 '회장'과 '행장'직 분리 약속을 꺾는 것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간단하지 않다. 지난해 6월 취임한 김 회장은 2011년 DGB금융그룹 출범 이후 첫 외부 출신 인사다. 1978년 외환은행에 들어와 하나금융지주 최고인사책임자 부사장, 하나은행 고객지원그룹 총괄 부행장, 하나생명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경북대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제2노조는 부



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현황

서균석	영남대 경영학 석사 현 계명대 명예교수회 회장
김진탁	영남대 축산경영 현 안동대 명예교수
김용신	영남대 경영학 현 공인회계사
이재동	경북대 법학 현 변호사

점장급 이상 직원으로 이뤄진 노조로, 100명도 채 안 된다. 제1노조는 약 2200명이 가입돼 있다.

이번 갈등의 뿌리에는 '출신 학교' 파벌 싸움이 발단이 됐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김 회장 취임 이후 지난해 7월 인사에서 물러난 임원 11명 중 9명이 대구상고·영남대

출신이다. 이른바 박인규 전 회장 겸 대구은행장인 '박인규 라인'으로 분류된다. 현재 대구은행 임추위에 속해 있는 서균석·김진탁·김용신·이재동 사외이사 모두 박 전 회장 시절 선임됐다. 이재동 이사를 제외하면 3명은 모두 영남대 학사 또는 석사 출신이다. 박 전 회장이 심어놓은 인사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들어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애초 김 회장이 회장과 행장직 분리를 약속했지만 예전 임원들이 모두 채용 비리나 수성구청 펀드 손실 사건에 연루돼 있어 풀이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주사이지만 은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면 지배구조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 인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당국으로선 자칫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어 신중하다는 분석이다.

현재 KB·신한·하나·농협·우리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지주사 회장이

행장을 겸하는 곳은 우리금융 한 곳뿐이다. 금융당국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장-행장 분리를 요구해왔다. 행장직을 겸하던 윤종규 KB금융 회장도 이러한 당국 분위기에 2017년 허인 행장에게 직을 넘겼다.

회장이 행장을 겸하는 우리금융은 지주사 출범 초기라는 명분이 있다. 현재 지주사 기준 우리은행 비중은 99% 이상이다. 다만 DGB금융은 그동안 '제왕적 지배구조'로 비판을 받아와 회장과 행장직을 겸직할 명분은 약하다.

대구은행 임추위는 18일 김 회장의 대구은행장 겸직 여부를 결정한다. 부결 시 대구은행 주식 100%를 보유한 DGB금융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임추위에 속한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3월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박 전 행장이 사퇴한 이후 대구은행장이 벌써 10개월째 공석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남산 3억 의혹' 수사 탄력

檢, 이르면 이달 위성호 행장·이백순 前 행장 소환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지주 측이 정치권에 거액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잇따라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위성호 신한은행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전날 신한은행 부실장을 지낸 송왕섭(현 신한은행 미국 LA지점장)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비서실장을 지낸 박중현 씨도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송 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위 행장으로부터 진술 회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송 씨는 2012년 신한 사태 관련 1심 당시 법정에서 "이상수 지점장을 일본 청기 외라는 고깃집에서 만나 '자유센터 간적도 없고 3억 원 건네준 적도 없다고 밀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신한사태 당시 거짓 증언하고 위증 교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운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 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 근에게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9월 신상훈 전 사장이 연루된 이회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검찰은 당시 박 전 실장 등으로부터 "이백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라 회장의 지시라며 돈을 마련하게 했고, 송왕섭 부실장과 남산으로 이동해 미리 와 있던 이전 부사장이 알려준 차량에 돈을 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흐지부지됐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라운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행장(당시 신한지주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조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세하 기자 shys0536@
김보름 기자 fullmoon@



상반기 KB금융그룹 경영진 Workshop

KB금융, 2019년 경영진 워크숍

KB금융, 2019년 경영진 워크숍

KB금융그룹은 15일 KB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윤종규(왼쪽에서 여섯번째) 회장을 비롯한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9년 그룹 경영진 워크숍'을 개최했다. 윤 회장은 워크숍에서 "그룹의 새 미션 '세상을 바꾸는 금융'과 새 비전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금융 파트너' 달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KB금융그룹

기업銀, 신임 부행장에 '감성한·서치길' 선임

여성 팀장 15명, 지점장 승진

IBK기업은행이 15일 부행장과 지역 본부장급을 포함해 2079명 규모의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신임 부행장으로 감성한 서부지역본부장을 부산·울산·경남그룹 부행장에, 서치길 호남지역본부장이 경영전략그룹 부행장에 각각 선임됐다. 신임 본부장에는 지점장 4명, 본부 부사장 4명이 승진됐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 직급에 역대 최대 수준의 여성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창립 이래 최대 인원인 여성 팀장 15명을 지점장으로 승진시켰다. 부지점장, 책임자급 여성 승진 인원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승진자 총 3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75명이 여성 승진자다.



감성한 부행장 서치길 부행장

이와 함께 향후 3년 이내 베테랑 지점장급 인력의 대규모 교체에 대비해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또 글로벌 진출·디지털 전환 등 주요 사업 부문에 인력을 증원해 미래 역량 확보와 혁신 기반 구축에도 힘을 실었다.

조직 개편은 조직 안정화와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외 IT 금융환경에 효율

적으로 대응하고 대면·비대면 채널 융합을 통한 최적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T 그룹의 편제를 개편했다. 효율적 고객 관리가 어려워진 대형 점포를 전략적으로 분리했다.

아울러 학습조직의 사업화를 위해 사내 벤처 조직 2개를 신설했다.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과 함께 혁신 인재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8년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 등 탁월한 경영 성과에 상응하는 인사로, 중기금융 '초격차' 전략 수행과 중기금융 우량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김도진 은행장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대출금리, 대폭 오른다

코픽스 2.04%... 4년 만에 최고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4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가 2%대를 넘은 것은 2015년 2월 2.03%를 기록한 이후 약 4년 만이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가 신규취급액 기준 2.04%로 전달보다 0.08%포인트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여기에 연동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리도 가파르게 오를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잔액 기준 코픽스는 1.99%로 전달보다 0.04%포인트 올랐다. 2015년 7월 2.08% 이후 3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11월 기준 코픽스 금리가 바뀌면서 코픽스 금리에 연동되는 은행권 변동대출 상품의 금리도 일제히 바뀐다.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영향이 은행 수신상품 금리에 영향을 주면서 코픽스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연초 희망퇴직 한파... 짐 싸는 은행원 2000명

연말·연초 약 2000명의 은행원이 짐을 싸 예정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16일까지 임금피크제 진입을 앞둔 1964년생(만 55세)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신청받고 있다. 대상자는 330명으로, 퇴사일은 이달 28일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전날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완료했다. 신청 인원은 각각 600여 명, 230여 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달 대상자 500여 명 중 400명의 신청을 받았다. NH농협은행은 앞서 지난해 말 597명의 희망퇴직을 마쳤다. 통상 신청자의 일부만 희망퇴직이 거절된다. 따라서 지난해

말과 올해 5대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규모는 2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 신청 인원이 늘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보다 신청 인원이 1.5배 늘었고 타 은행도 예년 수준보다 높다. 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월평균 3~5개월치의 임금을 더 얹었다. 여기에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도 배정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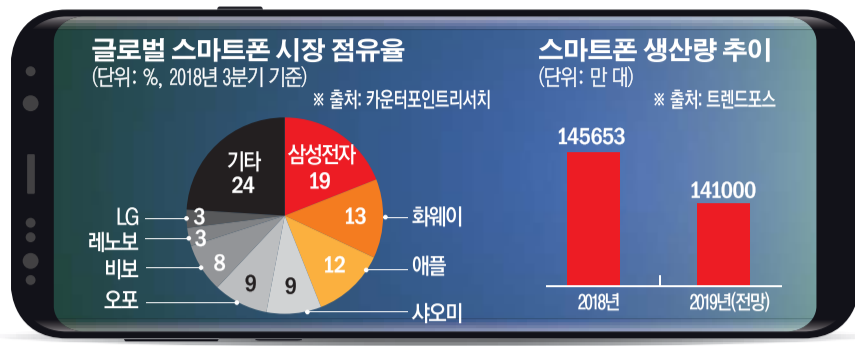
스마트폰 보릿고개...삼성 "중저가폰 차별화로 돌파"

2년 연속 역성장 전망

직장인 A 씨는 스마트폰을 3년 넘게 쓰고 있다. 예전에는 1~2년마다 교체했다. A 씨는 "스마트폰이 다 비슷비슷해졌고, 기능에서도 큰 차이가 없다"며 "과거처럼 고장도 잘 나지 않아 한번 사면 분실하지 않는 한 오래 사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태동한 지 10년을 넘긴 스마트폰 시장이 최근 '보릿고개'를 맞고 있다. 신규 수요가 줄어드는 탓이다. 지난해 스마트폰 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성장세가 꺾였다. 올해 역시 역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15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은 14억 1000만 대로, 작년보다 3.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트렌드포스는 "획기적 기능이나 사양이 부족해 교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합쳐지면 생산량이 5%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순위는 삼성전자(20%), 화웨이(16%), 애플(13%) 순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는 작년 2분기와 3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에서 이미 애플을 앞지른 적이 있다. 올해에도 상위 3개 업체 중 유일하게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 연간 생산량에서도 애플을 앞지릴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2억9300만 대를 생산해 작년보다 생산량이 8% 감



삼성 8%·애플 15% 생산량 줄어 올해 톱3 중 화웨이만 증가 예상

갤럭시 새 M 시리즈, 인도부터 LG "오래 쓰는 폰 이미지 구축"

소할 것으로, 애플은 1억8900만 대를 생산해 작년보다 생산량이 15% 감소할 것으로 각각 예상됐다.

수요는 줄었지만 중국 업체의 등장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압도적 1등이 사라지고 다수 업체가 줄어드는 파이를 놓고 다투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프리미엄 시장에선 5G(5세대 이동통신)와 폴더블폰 등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신규 시장 수요 창출을 위해 중저가 폰에도 차별화된 기술을 장착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이달 말 새로운 중저가폰 라인업인 갤럭시M 시리즈를 인도에서부

터 출시하고 다음 달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S10, 폴더블폰을 잇달아 선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력 상품에 신기술을 적용했다면, 이제는 중저가폰부터 먼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줬다"며 "또 폴더블폰처럼 기존에 없었던 폰을 통해 스마트폰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올해를 신뢰회복의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LG전자 관계자는 "사후 지원을 강화해 믿고 오래 쓰는 폰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올해의 전략"이라며 "LG V40 씽큐에 5개 카메라를 장착한 것처럼 고객들이 스마트폰에 직접 쓰는 기능들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역시 최근 'CES 2019'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는 신뢰를 많이 쌓는 작업을 하면서 폼팩터(제품 구조 형태)를 포함해 변화를 만들어가는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영록 기자 syr@
한영대 기자 yeongdai@

카살레노 삼성 북미 디자인혁신 센터장 "스마트폰 향후 10년 끄떡없다"

"밀레니얼 세대 생활 중심 현재 폴더블폰 UX 연구"



많은 영향 줄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10년 정도는 그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의 피트니스 밴드 '기어 핏' 시리즈, 코드리스 이어폰 '기어 아이콘X', 대화면 태블릿 '갤럭시 뷰', iF, IDEA 등 디자인 어워드에서 호평 받은 이 제품들의 공통점은 삼성전자 북미 디자인혁신센터(Samsung Design Innovation Center, SDIC)가 고품이라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건축 사무소들과 디자인 에이전시가 준비해 있는 잭슨 스퀘어(Jackson Square)에 위치한 SDIC를 찾았다. 삼성전자는 실리콘밸리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디자인에 반영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SDIC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만난 SDIC의 페데리코 카살레노(Federico Casalegno·사진) 센터장은 "(다바이스) 핵심 사용자인 밀레니얼(1982~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과제가 여러 개 있지만, 지금 삼성 스마트폰을 우선 과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상당 기간(스마트폰은) 밀레니얼 세대의 생활에 가장 중심이고

SDIC는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카살레노 센터장은 "폴더블폰의 하드웨어 특징 자체가 광장한 혁신이고 새로운 것이다. 기술적 혁신 외에 어떤 사용자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내놓은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SDIC의 저력은 융복합 사고에 있다. 우선 카살레노 센터장부터 디자인이 아니다. 그는 이탈리아 태생의 파리5대학 문화 및 커뮤니케이션 사회학 박사 출신이다. MIT의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랩과 디자인 랩을 지냈다. SDIC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융복합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다. 디자인 전공자 외에도 인문학·경영학·소프트웨어·컴퓨터 과학 전공자들이 협업 중이다.

샌프란시스코(미국)=권태성 기자 tskwon@

금호타이어, '광주형일자리 단지'로 공장 이전 추진

(빛그린산단)

광주시·미래에셋대우와 MOU 현 공장부지 '송정역 개발' 포함 차기 회장 선임 여전히 안갯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광주형 일자리 선도 모델인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는 논의가 본격 시작된다. 이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 과정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회장 선임 과정이 순탄치 않아 자칫 정상화의 암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타이어는 16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광주시·미래에셋대우와 광주공장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금호타이어와 광주시는 업무협약을 통해 미래에셋대우에 광주공장 부지 개발가치 평가, 이전 장·단점

분석 등을 포함한 도시계획 변경 타당성 용역을 맡긴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공장 이전이 확정되면 광주 인근 빛그린산단에 첨단·친환경 설비를 갖춘 공장을 새로 짓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이전해 현재 부지를 송정역 고속철도(KTX) 투자 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호타이어 정상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회장 선임' 과정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차기 회장에 내정된 이대현 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에 대해 노조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타이어의 최대 주주 더블스타는 이달 말 열기로 했던 이사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이대현 내정자에 대한 회장 선임 안건을 올릴 예정이었다. 추후 이사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회장 선임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은 금호타이어 노조가 이 내정자의 선임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노조는 차이웅선 더블스타 회장에게 '대표이사 선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내정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차이 회장은 노조에 "이 내정자와 대화해 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이 내정자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부족'이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전문가이자 금호타이어 경영 실패에 책임 있는 산은 채권단 관계자가 회장으로 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노조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지금 상황에선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만 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김ברי 기자 kimstar1215@

공장 더 돌릴지 말지...깜깜한 정유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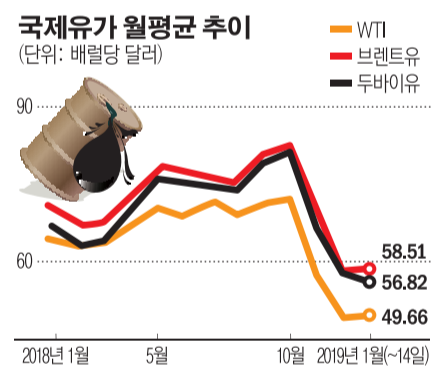
두바이유 1년새 60~80~50달러 유가 급등락에 운영 전략 못 짜

예상을 뛰어넘는 국제유가 널뛰기에 국내 정유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제유가는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의 비중 도입이 높은 중동 두바이유는 지난해 초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0월에는 배럴당 평균 80달러까지 근접했다. 이에 유가가 연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은 또 보기 좋게 빛나갔다. 12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57.32달러였다. 불과 2개월 만에 평균 20달러가 넘게 빠진 것이다.

유가 변동에 민감한 정유업체의 실적도 롤러코스터를 탔다.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정유사들은 3년 연속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봤으나 연말 급락한 국제유가가 찬물을 끼얹었다. 시장에서는 작년 4분기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의 합산 영업이익이 전 분기보다 88%가량 쪼그라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중동 석유



수출국기구(OPEC)의 감산과 증산에 의해 유가가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유가 예측이 과거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도 유가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유업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근래 들어 유가의 변동성이 두드러지게 커졌고 등락 폭이 예측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고 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공장 운영 전략을 세우는 데 방향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효선 기자 hsbun@

삼성 무풍 vs LG 멀티...북미 공조기 시장 맞붙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특화된 공조 제품을 전략적으로 선보이며 북미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4일(현지시간) 개막해 16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AHR엑스포(The International Air-Conditioning, Heating, Refrigerating Exposition)'에 참가해 북미 시장을 공략할 혁신 공조 솔루션을 대거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무풍 에어컨 기술에 냉방 용량을 늘린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가정용부터 상업용에 이르는 무풍에어컨 풀 라인업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냉방 용량이 기존 대비 2배 확대된 벽걸



삼성전자 무풍 4Way 천장형 실내기.

이형 무풍에어컨을 새롭게 선보이며 가정용 에어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첫선을 보인 무풍 4Way 카세트(천장형 실내기)는 '2019 AHR 엑스포 혁신상' 냉방(Cooling) 부문에서 파이널리스트(Finalist)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이 제품은 1만5700개의 마이크로홀을

통해 냉기를 분사해 직바람 없이 시원함을 유지해주며, 최대 5m 송풍거리를 확보해 넓은 공간도 빠르게 냉방해준다. 또 동작 감지센서(MDS)로 운전 효율성을 높여 최대 55%까지 에너지를 절감했다.

LG전자는 북미지역 대형 단독주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인 '멀티에프 맥스'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1대의 실외기로 최대 8대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고 각각의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제어하는 게 가능하다. 실내기도 벽걸이, 카세트, 덕트 등 소비자가 원하는 타입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 미국 환경청이 고효율 제품에 부여하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인증을 획득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 TV 최대 100만원 할인

LG전자가 2월 말까지 'LG TV 새해맞이 특별전'을 열어 OLED TV 구입 고객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OLED TV 수요 증가 및 최근 대형 TV 선호도 등 고객 수요를 고려해 65인치 OLED TV 가격을 대폭 낮췄다. 65인치 올레드 TV(모델명: OLED65B8CNA)는 기존 대비 20만 원 낮은 399만

원에 판매된다. 또 다른 65인치 OLED TV(모델명: OLED65W8WNA)의 경우 기존보다 100만 원 낮은 75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LG전자는 특정 TV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한다. 65인치 OLED TV 2종 모델(OLED65E8KNA/OLED65C8GNA) 구입 시에는 32인치 LCD TV를 증정한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LG '英 소비자 선정' 최고 IT·가전 브랜드

삼성전자, LG전자의 IT·가전제품이 영국 소비자가 선정한 2018년 최고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연맹이 발간하는 매체 '위치(Which?)'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된 8개 가전·IT 품목의 457개 브랜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해 '2018년 최고 제품'을 최근 선정·발표했다.

총 17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TV 브랜드 평가에서는 LG전자가 최고 점수를 얻어 '올해의 브랜드'에 올랐다. 위치는 "LG

전자와 파나소닉, 소니 등 OLED TV가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서 "LG와 삼성의 지배력에 도전할 만한 브랜드로는 중국 TCL을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태블릿 PC 부문에서 최대 경쟁사인 애플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다. 총 41개 브랜드가 경쟁한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위치는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태블릿 PC의 경우 '삼성 갤럭시 탭 S4'가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진중 수빅조선소 회생절차 개시

한진중공업은 필리핀 올롱가포 법원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HHIC-Phil)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후 절차는 국내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유사하게 진행된다. 필리핀 법원이 수빅조선소에 대한 관리인을 선임하고, 수빅조선소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진중공업 측은 현지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빅조선소 투자 유치와 매각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부터 수빅조선소 매각을 추진해왔다. 필리핀 현지 언론도 최근 수빅조선소 5개 채권은행과 필리핀 중앙은행이 수빅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자 찾기에 나설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수빅조선소는 한진중공업이 경쟁력을 높이려 필리핀 수빅에 건립한 해외 조선소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美서 사라지는 소형차, 국내 판매도 급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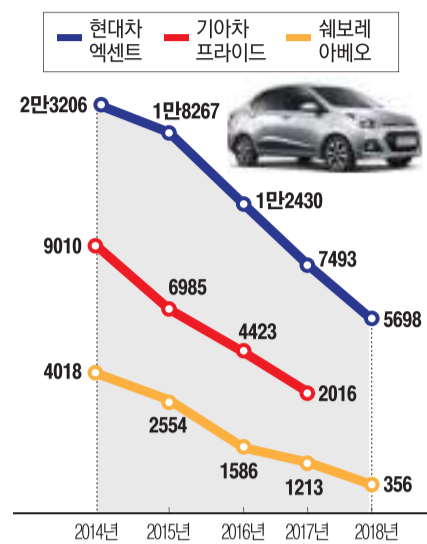
한국 판매량 5년간 83% 줄어 값 오르고 유지비 메리트 없어 사회초년생 첫 차 준중형 선택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첫 차로 인기를 모았던 2만 달러 이하 소형차가 사라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5년 새 소형차 판매가 무려 83% 감소했다. 소형 SUV가 이 시장 수요를 잠식하는 한편,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소형차 가격이 이전보다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하락도 유지비가 저렴한 소형차에는 절되나 다름없었다.

15일 자동차산업협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경차 및 소형차 시장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는 5년 새 판매가 38% 줄었다. 2014년 18만6702대에 달했던 경차 판매는 지난해 11만5649대 수준에 머물렀다.

감소 폭은 소형차가 더 컸다. 경차와 준중형차 사이를 매워온 이들도 있다. △현대차 엑센트 △기아차 프라이드(2018년 단종) △쉐보레 아베오 등이다. 같은 기간 이들

국산 소형차 내수판매 추이 * 출처: 각사 (단위: 대) * 기아차 프라이드는 2018년 단종



의 판매는 80% 넘게 감소했다.

2014년 2만3206대에 달했던 현대차 엑센트 판매는 지난해 5698대로 급감했다. 1만 대에 육박했던 기아차 프라이드 역시 월 200대 수준을 힘겹게 유지하다 결국 지난해 단종했다. 쉐보레 아베오 역시 작년 한국지엠 사태를 겪으면서 고작 356대 판매하는 데 그쳤다. 2014년 총 3만6234대에 달했던 전체 소형차 판매는 지난해 6054대로 무려 83%나 감소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사실상 이 시장이 붕괴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미 소형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여러 차종이 단종 수순에 접어들었다. 유가가 하락하면서 대배기량 세단과 덩치 큰 SUV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소형

차 판매가 급감하자 북미에서 경쟁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잇따라 소형차를 단종하고 있다.

국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큰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사회초년생의 첫차가 경차 또는 소형차가 아닌 '준중형차'에서 시작하고 있다.

나아가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값싼 소형차의 인기도 시들해졌다. 2010년대 초, 리먼쇼크 이후 리터당 2000원에 육박했던 휘발유 단가가 최근 1500원 미만으로 내려왔다. 기름값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면서 소형차의 매력이었던 값싼 유지비에 대한 매력은 그만큼 반감했다.

강화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도 시장을 위축시켰다. 자동차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경차와 소형차도 에어백과 ABS 등을 의무로 장착해야 한다. 자연스레 차 가격이 워낙 준중형차에 버금갈 만큼 비싸졌다. 여기에 가격대가 비슷한 소형 SUV가 인기를 끌면서 이들에게 시장 수요 일부를 빼앗아간 것도 판매 감소의 배경으로 꼽힌다.

박상원 흥국증권 연구원은 "자동차 안전기준이 강화되면서 갖가지 장비가 추가됐고 소형차 가격이 준중형차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다"며 "준중형차와 중형차에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되면서 값싼 유지비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값싼 유지비가 더 이상 소형차의 구매력을 자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Hanmi 한미약품
광고심의필: 2018-1455-004400

99세까지 건강하게-

엄마 아빠,
나인나인으로
건강 꼭 챙기세요!

*28가지
국내 최다 성분 한국인 맞춤 종합비타민
*2018년 8월 기준

나인나인[®]

정 하루 한알

【효능·효과】 ●육체피로 ●눈 건조감 완화 ●병중/병후의 비타민 보급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철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능·효과 및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설명서를 참고해 주세요.



기아차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텔루라이드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제공 기아차

美만 보고 만든 '텔루라이드' 통할까

기아차 새 대형 SUV 공개 디자인·생산·판매 모두 미국서 각진 디자인에 아웃도어 특화 첨단 운전보조장치 반전 매력

기아차의 대형 SUV 텔루라이드가 베일을 벗었다.

기아차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19 북미 국제 오토쇼(2019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 이하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텔루라이드를 최초로 공개했다.

2016년 디트로이트 모터쇼를 통해 콘셉트 모델로 공개된 바 있는 이 차는 기아차가 북미 SUV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개발한 북미 전용 모델로 상반기 본격 출시될 예정이다.

텔루라이드의 내장 디자인은 수평적이고 직선적인 디자인 방향성을 기본으로 나와 공법으로 가공한 가죽, 브러시드 메탈, 무광 마감 목재 등의 소재를 적용했다.

텔루라이드는 전장 5000mm, 전폭 1990mm, 전고 1750mm, 축간거리 2900mm의 차체 크기를 바탕으로 최대 8인승까지 운영된다. 기술린 3.8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최고출력 295마력(ps), 최대토크 36.2kgf·m의 동력 성능을 갖췄다.

첨단 안전 사양들도 대거 적용됐다. 기아차는 텔루라이드에 고속도로 주행보조(HDA), 전방충돌경고(FCW), 전방·후측방·후방교차충돌방지보조(FCA/BCA-R/RCCA), 차선유지보조(LKA), 후측방모니터(BVM), 안전하차보조(SEA) 등 다양한 첨단 지능형 주행안전기술(ADAS)을 적용했다.

텔루라이드는 아웃도어 활동에 특화된 기술뿐만 아니라 각종 편의사양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장착해 최적의 내부 환경을 제공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기아 미국 디자인 센터(Kia Design Center of America, KDCA)'에서 디자인했으며 향후 기아차 미국 생산 공장인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외국인, 기관 매매 종목 이제는 실시간이다!

증권사 실시간 수급 솔루션 **THE HINT**

‘더 힌트’는 실시간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를 추적해
종목을 포착하고 매매의 타이밍을 찾아내는 획기적인 서비스입니다



수급차트

종목진단

누적금액

누적강도

시장분석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식거래시 수수료율은 기존 수수료율(0.014~0.5%) + 0.09%이며, 기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하나금융투자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당사의 공식적인 조사 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Hint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증권빅데이터투자연구소의 책임하에 운영됩니다. * 본 서비스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보조시스템으로 수익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8-00473호(2018.01.25~2019.01.24) CC브랜드-180124-450

부엌 벗어난 주방가전... 뷰티·유통사업 잇단 도전장

‘자이글’ 뷰티헬스케어 브랜드 론칭 산소마스크 출시
‘리컵’ 소형 온풍기 선풍... ‘휴롬’ 주스 유통사업 진출
간편식·1인 가구 증가로 실적 악화 신사업으로 만회

주방가전 제품으로 입지를 공고히 한 중소기업들이 ‘외도’에 나서고 있다. 1인 가구가 늘고, 간편식 시장이 커지면서 제품군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방가전 업체들이 화장품, 소형 가전 등 제품 다각화로 신성장 발굴에 힘쓰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간편식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0년 7700억 원이던 국내 가정간편식 시장은 2017년 3조 원 규모로 증가해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다. 배달 앱 시장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해 현재 3조 원 규모로 평가된다. 2013년 3000억 원 규모에서 10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이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주방가전에서 눈을 돌린 대표적 기업은 자이글이다. 자이글은 지난달 뷰티헬스케어 브랜드

‘ZWC’를 론칭하고 산소마스크 제품을 출시했다. 산소마스크를 렌탈로 출시하며 자이글은 렌탈 시장에도 발을 들였다.

2008년 설립된 자이글은 적외선 조리기구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상승세를 이어가 2016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6년 1020억 원이던 매출액은 2017년 82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까지의 연 매출액은 450억 원으로 2017년 동기 대비 225억 원 줄었고,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손실은 35억 원으로 2017년 동기 기준 7억 원에서 적자 전환했다.

자이글 관계자는 “그릴 하나로 얼마나 가겠냐는 질문은 그동안 꾸준히 받아왔다”며 “산소케어”로 제2 도약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 3년간 개발해 출시한 산소마스크”라며 “LED와 산소가



지난달 자이글이 출시한 자사브랜드 ‘ZWC’의 산소케어 제품(왼쪽)과 리컵이 1일 출시한 히팅서클레이터 ‘히릿’.
사진제공 자이글·리컵

같이 나가는 마스크 제품도 이미 개발을 완료해 연내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최초로 식품건조기를 시장에 선보인 리컵도 올해 처음 소형 가전제품을 내놓으며 제품군 확대에 나선다. 리컵은 2003년 식품건조기를 선보였고, 식품 건조기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 잡았다. 이후 블렌더, 반죽기 등 주방용품 출시에 주력했다.

리컵은 이달 1일 소형가전 제품 히팅서클레이터 ‘히릿(Heat It)’ 출시했다. 히릿 출시를 기회로 리컵은 주방가전에서 소형 가전으로 제품군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리컵은 상반기 내에 온열 손 안마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원액기 제조사 휴롬은 작년 7월 주스 유통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원액기 시장에서 이름을 알린 휴롬은 단일 품목으로 성장한 대표적 주방가전 브랜드다. 그러나

2014년 3000억 원대의 매출에서 2017년 연 매출이 929억 원으로 크게 줄며 신사업 진출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휴롬이 개발한 원액기로 첨가물 없이 채소, 과일만을 사용해 짜낸 주스는 공식 쇼핑몰 휴롬숍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 주스 유통 사업 진출 이후 휴롬은 꾸준히 주스 라인업을 늘렸고, 이달 2일 배도라지인삼 착즙 주스를 출시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납품단가 보복·부당행위, 최대 3배 손해배상

상생협력법 개정안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위탁업체가 납품단가와 관련해 보복 및 부당행위를 하면 수탁업체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대금 감액 등 분쟁 해결에 대한 정당성 입증 책임도 위탁기업이 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률은 7월 16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중소기업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5월 발표

징벌적 손해배 도입...분쟁 발생시 입증책임도 위탁기업에 공급원가 변동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신청 가능해져

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의 후속 조치다.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 협의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원가가 변동될 상황에 처해지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측은 개별 기업 대신 위탁기업과 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수탁

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법은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를 단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에 대한 책임도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영세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 물품 대비 낮은 대금 결정 등과 관련된 분쟁에서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거래에서 약정서 누락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아울러 위탁기업이 거래를 이유로 수탁기업에 원가 정보 등 부당한 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중기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상생에 의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기훈 기자 shagger1207@

지난해 中企 61.7% 사회공헌 활동 실천

평균 투자비용 2억1500만원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금액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사라나눔재단은 중소기업 3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중소기업 사회공헌 현황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평균 투자비용은 2억1500만 원으로 2017년 2억2100만 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24.5%) △사회공헌 플랫폼 마련(23.4%) 등 직접적 규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센티브(12.0%) △정보 제공(10.4%) 등의 의견도 있었다.

매출액 규모 150억 원 이상에서는 세제 혜택보다는 사회공헌 플랫폼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1.7%로 조사됐다. 직전 조사인 2015년의 61.5%보다 소폭 늘었다. 사회공헌의 추진 배경은 △내부적으로는 CEO 의지(77.6%)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이미지 개선(10.4%)을 주로 꼽았다.

사회공헌 활동 대상은 국내(91.1%)가 대부분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청소년(43.2%), 노인(18.8%), 장애인(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은 주로 현금 기부(88.0%)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 부족(71.4%)과 전담 인력 부족(14.3%)을 꼽았다.

김기훈 중소기업사라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는 기업들에 제도적 지원과 모범 사례를 대외에 널리 알려 기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통신비 청구서, 영상으로 쉽게 본다

LGU+ 이달부터 도입... 고객 문의 감소·만족도 상승 기대

복잡했던 통신비 청구서를 영상으로 쉽고 편하게 볼 수 있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15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달부터 국내 최초로 통신비 청구서를 영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 청구서는 △가입한 날부터 말일까지 요금이 산정된 기간 △일할 계산된 요금 △다음 달 청구될 예상 요금 △고객이 가입한 요금제 혜택 △고객이 가입한 결합 상품 내역 △요금 납부방법 등 청구금액과 관련해 고객이 자주 묻는 정보를 설명해준다. 영상은 2분 내외로 고객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만 담았다.

모바일 및 홈서비스에 신규 가입, 요금제 변동 등 고객이 최초로 청구서를 수령하는 시기에 맞춰 기존 청구서와 연계없이 URL 형태의 영상청구서를 제공한다.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60대 이상인 고객에게는 재생시간이 80% 느리게 제공한다. 기존 청구서는 고객이 직접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최근에는 온라인물 구매가 늘어나면서 고객들이 요금제 혜택이나 청구 금액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늘고 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매일 고객센터로 유입되는 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신규 기기변경·재약정 고객이 최초 청구서를 수령한 후 60일 이내 고객센터를 통해 단순 문의를 하는 비중이 약 30%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고객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독일 보다폰과 미국 AT&T의 영상청구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청구서를 영상으로 제공한 독일 보다폰은 고객의 문의 감소 및 고객만족도 상승 효과를 얻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청구서를 영상으로 제공한 미국 AT&T는 고객 문의 감소 및 고객센터 응대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상청구서를 통해 문의가 가장 많았던 핵심적 기본 정보들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일



장상규 LG유플러스 고객센터그룹장(상무)이 고객의 통신요금을 영상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영상 청구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평균 1000콜, 월 평균 2만 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객이 청구서를 받아보는 기간에 고객센터가 가장 분주한데, 공급증을 사전에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첫 청구서를 받는 고객은 영상청구서를 시청할 수 있는 URL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받는다. URL을 클릭하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는 간편인증방식을 통

해 U+고객센터 앱의 영상청구서 시청 페이지로 자동 연결된다.

장상규 LG유플러스 고객센터그룹장(상무)은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고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객 맞춤형 영상청구서를 도입했다”며 “향후 영상 청구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건기식 시장에 수저 올린 제약사

〈건강기능식품〉

지속 성장을 위한 캐시카우 확보에 목마른 제약사들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앞다퉀 뛰어들고 있다. 건기식은 이미 갖춰진 연구·개발(R&D) 인프라와 노하우로 비교적 수월히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 포인트로 꼽힌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해 4월 '헬스&라이프스타일' 건기식 브랜드 '뉴오리진'을 선보였다. 회사는 뉴오리진을 미래 성장을 이끌 신규 사업으로 정하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렇듯 유한양행 시장은 올해 시무식에서 뉴오리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 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임직원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서울 여의도 IFC몰을 시작으로 롯데타워몰, 부산 W스퀘어점 등 6개 콘셉트 스토어를 열었으며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16개 직영매장을 두고 있다. 특히 뉴오리진을 글로벌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와 중국 칭다오, 홍콩 등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대원제약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전문 브랜드 '장대원'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는 최근 홍콩에 정식 출시됐다. 회사는 올해 홍콩으로만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 주요 국가를 넘어 앞으로 남미·북미 지역까지 수출 시장을 확대할 예정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올해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외에도 신규 건기식 라인

유한양행 '뉴오리진'·대원제약 '장대원' 전문 브랜드 선보여
지난해 건기식 규모 4.3兆...2년 새 20% 이상 급성장
제약업계 R&D 노하우로 시장 진입 수월...수익창출 나서



업을 강화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온스는 건기식 사업 강화를 위해 홍삼 및 천연물 관련 건기식 전문 회사 휴온스네이처(구 성신비에스티)를 인수했다. 휴온스네이처는 휴온스의 해외 사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지로 홍삼 기반 건기식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발효허니부추추출물을 활용한 건기식을 선보이고 있는 휴온스는 홍삼과 함께 갱년기 유산균 및 항알러지 관련 제품 R&D를 통해 건기식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일동제약은 건기식 시장 본격 진출을 위해 2016년 건기CM팀을 신설, 1년여의 준비 끝에 이듬해 6월 종합건기식 브랜드 '마이니'를 론칭했다. 기초영양, 기능성,

임산부, 갱년기 등 분야별로 40여 종의 다양한 제품이 출시돼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국내 건기식 시장은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은 4조3000억 원으로 2년 전인 2016년(3조5000억 원)에 비해 20% 이상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제약사들은 건기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중견제약사 관계자는 "신약 개발이 워낙 많은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다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회사는 건기식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에게 쉽게 이름을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백화점 최대 와인 복합매장 현대백화점이 국내 백화점업계 최대 규모의 와인 매장 '와인웍스'를 압구정본점에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와인웍스는 와인에 곁들여 먹는 20여 종의 요리와 와인을 함께 판매하는 '레스토랑', 한 잔씩 구매해서 매장서 마실 수 있는 '와인바' 등 와인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예상보다 포근한 겨울...롱패딩 판매 '울상'

G마켓 "지난해 12월 판매 전월비 -59%"...경량패딩 수요 늘어

겨울철 평균 기온이 영상을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며 롱패딩 판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롱패딩 판매율이 전월보다 2% 줄다가 12월에는 전월에 비해 59%나 급감했다고 밝혔다. 옥션에서 지난해 11월 롱패딩 판매율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3%나 늘었지만 12월부터는 판매 신장률이 29%로 떨어졌다. 블랙야크의 롱패딩 판매 신장률도 12월에 70%를 기록했으나 올 1월부터 50%로 떨어졌다.

이처럼 롱패딩 판매가 급격히 줄어든 데는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가 작용했다. 11월부터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해해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와 '때 이른 추위'가 이어지

나 했더니 금세 평년을 웃도는 기온을 회복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12월 전국 평균 기온은 각 8.1℃, 1.1℃를 기록해 평년(11월 7.6℃, 12월 1.5℃)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판매가 줄어든 롱패딩의 자리는 경량패딩이 채웠다. 실내에서 가볍게 걸치거나 코트 속에 입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경량패딩을 찾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 옥션에 따르면 패딩 조끼의 판매 신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년 대비 17% 증가에 그쳤으나 12월에는 132%나 늘었다. 블랙야크의 경량패딩 판매 신장률 역시 12월보다 1월에 2배가 늘어 30%를 기록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롱패딩의 판매를 실내·외 활용도가 높은 경량패딩 제품군이 대체하고 있다"며 "경량패딩 제품은 지속

월별 롱패딩 판매 신장률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기준)



해서 늘고 있다"고 말했다.

따뜻한 날씨에 벌써 봄·여름 상품을 출시하는 의류업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2019 봄·여름 신상품 'Uniqlo U' 컬렉션을 출시했고 지유 역시 봄·여름 신상품으로 '에크루(Ecru) 컬렉션'과 '지유진(GU JEANS) 컬렉션'을 선보였다. 와이드앵글은 냉감 소재를 적용한 신제품을 내놓으며 역시 시즌 마케팅에 나섰다.

박미선 기자 only@

체인스토어협회장 '공백' 장기화

'정책 반대' 총대 역할 부담...유통사 수장들 손사래

김종인 전 롯데마트 대표가 지난달 롯데디자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식이 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에 지원자가 없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무 휴업 확대와 출점 규제 등의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고 총대를 메야 하는 자리인 만큼 선택을 내서는 이가 없어 공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명표 롯데마트 대표,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

15일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별로 의사를 타진 중"이라면서 "2월 말~3월 초에 열리는 총회에서 차기 협회장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국내 최대 유통산업 단체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CJ올리브영 등 대기업 유통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2년 임기의 협회장을 맡아왔으나 인사로 갑자기 롯데디자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협회장에서 내려왔다.

업계에서는 과거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같은 회사 도성환 사장이 협회장에 올랐던 전례에 비해 문명표 롯데마트 신임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문 대표가 협회장 자리를 고사하면서 1월 중으로 추진하던 총회도 2월 말 이후로 미뤄졌다. 이르면 2월 말 새로운 협회장이 취임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협회 역사상 가장 긴 공백이 된다.

협회장 자리에 섰을 때는 이가 없는 이유는 여러모로 어려운 유통업계 상황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상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영업 제한 성격이 짙다.

협회장은 이들을 대표해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국정감사 등에 불려 나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도 있다.

특히 신임 문 대표의 경우 내부 사정도 만만치 않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유증으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다 온라인 공세 등으로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3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외부 감투는 부담스럽다. 또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로 유통업계를 2년 가까이 떠나 있었던 만큼 내부 사정 파악이 시급하다.

마트 빅3 업체가 돌아가면서 협회장을 맡아온 관행에 비해 임일순 홈플러스 대표도 물망에 오른다. 임 대표의 경우 유통업계 최초 여성 CEO라는 상징성도 있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임 대표의 임기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최악의 경우 협회장을 임기 중에 다시 뽑아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할 때 협회장 부재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서로 협회장을 맡지 않으려 눈치 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면서 "특히 민감한 시기에 협회를 대변했다가 정부의 미움을 살지 몰라 다들 몸을 사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세븐브로이,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

마트·편의점·SSM 유통망 갖춰



국내 수제맥주업체 세븐브로이가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입점해 판매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세븐브로이는 대형마트, 편의점뿐 아니라 기업형슈퍼마켓(SSM)까지 입점해 국내 수제맥주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전 유통 채널에 진출하면서 국내 수제맥주 업계 최대 유통망을 갖추게 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는 신세계 그룹 계열 기업형슈퍼마켓(SSM) 업체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80~100개 점포에 초도물량으로 한강병맥주, 서울병맥주 등 8종을 11일부터 출하해 14일 입점 완료했다. 세븐브로이는 2월부터는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농협 전 유통망에도 판매될 계획이다.

세븐브로이의 맥주는 홈플러스, 롯데마트를 비롯해 편의점 CU(씨유), 세븐일레븐 일부 점포에 납품해 판매 중이다. 세븐브로이 측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입점은 세븐브로이가 도매 유통에 진출했다는 의미다.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망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세븐브로이는 '한강맥주', '양평맥주' 등 지역명을 딴 제품으로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세븐브로이의 '강서맥주'와 '달서맥주'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초청 청와대 호프 미팅 만찬주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총수들과 함께 마신 수제맥주로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세븐브로이 맥주는 품귀현상을 빚었고, 2018년 7월 생산시설인 양평공장을 증축한 바 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증권거래세 개편’ 탄력받는다

이해찬, 금투협최서 ‘현장간담회’ 권 회장 “선진시장 조세체계 단순 거래세 단계적 폐지 점검” 파력에 “정치권 거론 안돼... 적극 검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권요원 금융투자협회장이 발언하는 모습. 뉴스스

최근 정치권과 금융투자 업계 화두인 증권거래세 폐지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대표가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해 왔던 증권거래세 폐지 등 세계개편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진행된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원활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투자자금으로 전환해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

권·자산운용사 대표들을 직접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증권거래세 개편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요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선진시장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 자본시장 관련 조세체계가 굉장히 단순하다”면서 “조세체계가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국민 자산 증대와 노후자금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세 폐지에 대해서는 단계적 폐지 등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코스피시장의 경우 0.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가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없이 0.3%의 증권거래세로만 구성돼 있다. 기타 비상장주식은 0.5%다. 특히 대주주에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는데, 적용되는 대주주 범위는 2020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며, 2021년 4월에는 ‘3억 원 이상’으로 한 단계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다.

지난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증권거래세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세계 주관부처

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거래세 폐지 주장이 다시 수면 아래로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금이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보다 국제 수입이 많아 정부 공간이 여유로운 데다 앞으로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거래세 폐지가 정부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까지 견인 국세는 총 279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8조 원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세수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증권거래세 폐지가 ETF나 단타에 몰렸던 투자자금이 펀드 같은 간접투자 형태의 상품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계 의견을 청취한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계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될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계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본딩와이어·솔더볼 성장가도 지속 주석재생·음극소재 신사업 가시화”

CEO 인터뷰

이진 엠케이전자 대표

엠케이전자가 본업인 본딩와이어·솔더볼 사업에서 지속적인 성장가도를 달리는 가운데, 신사업에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전망이다. 신성장동력은 주석 재생 사업과 2차전지 음극소재 사업이다.



현재 본딩와이어 중심 사업구조 중 시장 1위 목표 신제품 확대 2~3년 내 주판 상장 추진 등 희소 금속 재생 기술 개발도 구상

해 중국시장 내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며 “중국 법인은 2016년 12월 신삼판의 상장 이후 영업실적과 성장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3년 이내에 주판 상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엠케이전자는 공정 자동화와 전산화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핵심 효과는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이다.

◇2019년 주석 재생사업과 2차전지 음극재 매출 가시화 = 이진 대표는 “지난해 주석 재생과 2차전지 음극소재 사업을 위해 음성 신공장을 설립했다”며 “시설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사업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주석 재생은 올해 345톤 생산 목표 중 3분의 2는 판매해 매출 확대 및 수익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나머지는 솔더볼 생산 설비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년간 연구를 진행해온 2차전지 음극재 사업 역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차전지 음극소재는 3월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 소재(WPM)사업’ 국책과제 완료 이후 다양한 전지업체들과 협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종민 기자 kjm@

증권사, 허리띠 더 졸라 맨다

경기 불확실성에 손익 악화 커져 구조조정 바람 명퇴 비용도 증가 지점 축소에 복리후생비까지 감축

증권사들이 근살 뼈기에 나섰다. 증시 불확실성 확대로 손익이 악화되면서 지점 축소를 비롯해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증권사 53곳의 국내 지점 수는 1129곳에서 1108곳으로 2% 가까이 감소했다. 미래에셋대우는 169곳에서 149곳(-14%)으로, 하나금융투자도 64곳에서 57곳으로 12% 줄었다. 메리츠증권(-17%), 현대증권(-5%), 대신증권(-2%) 등도 지점을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증시 침체와 수익 부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거래대금 및 신용잔고 감소, 평균 수수료를 하락으로 브로커리지(중개수수료) 수익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2017년 4677명이던 미래에셋대우의 임직원 수는 지난해(3분기 기준) 4545명으로 2.9% 감소했다. 대신증권은 1603명에서 1542명(-3.96%)으로, 유안타증권은 1710명에서 1699명(-0.65%) 축소됐다. 교보증권, DB금융투자도 소폭 감소했다.

일부 증권사는 학자금, 의료지원, 대출 등이 포함된 복리후생비에도 칼을 댔다.

증권사 지점 현황

증권사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증감률
미래에셋대우	169	148	-14.19%
유안타증권	69	67	-2.99%
하나금융투자	64	57	-12.28%
대신증권	53	52	-1.92%
교보증권	33	32	-3.13%
DB금융투자	30	28	-7.14%
현대증권	22	21	-4.76%

증권사 임직원 현황

증권사	2017년 3분기	2018년 3분기	증감률
미래에셋대우	4,677	4,545	-2.90%
유안타증권	1,710	1,699	-0.65%
대신증권	1,603	1,542	-3.96%
교보증권	942	926	-1.73%
DB금융투자	847	821	-3.17%
유진투자증권	717	715	-0.28%
케이프투자증권	266	252	-5.56%

※출처: 금융투자협회

DB금융투자는 1년 사이 복리후생비를 145억5332만 원에서 98억8384만 원으로 약 -47% 감축했다. NH투자증권도 672억 원에서 613억 원(-9.50%)으로, 미래에셋대우(-6.62%), 대신증권(-6.48%), 신영증권(-2.39%)도 규모를 줄였다.

구조조정 바람이 불면서 명예퇴직 관련 비용도 증가했다. 2017년 15억5205만 원에 불과하던 NH투자증권의 명예퇴직 비용은 지난해 31억4653만 원으로 51% 늘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내츨엔도텍 “백수오 복합 추출물 中 보건식품 허가 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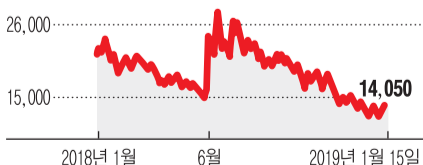
중국 기업과 유통 계약

내츨엔도텍이 3월 백수오, 한속단, 당귀의 3가지 생약을 배합한 복합 추출물의 중국 보건식품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은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 건강기능식품 소재다. 내츨엔도텍은 오랜 기간 중국 보건 식품 허가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현재는 허가 전 현지 기업과 유통 계약까지 마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15일 “백수오 등의 중국 허가 절차는 보건식품 기술 심사를 완료하고 작년 11월 행정심사에 들어갔다”며 “올

내츨엔도텍 주가 추이



해 3월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보건식품 허가는 보통 3~4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당사 또한 2014년부터 준비를 해왔다”며 “현재까지 문제없이 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이르면 2월 행정심사를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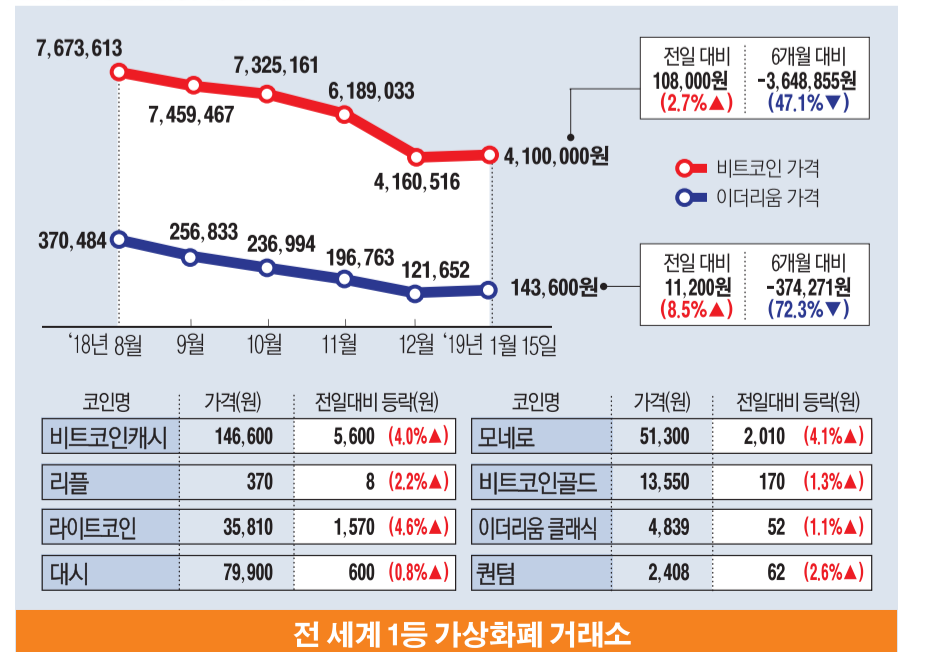
하고 판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츨엔도텍의 백수오 등 복합 추출물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미국 식품의약품(FDA), 유럽 식품안전국(EFSA)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검증을 마쳤기 때문이다.

중국 유통 계약은 현지 증시에 상장된 국영기업 관계사와 체결했다. 수출할 내츨엔도텍 제품은 중국 내 병원, 약국, 온라인, 방문 판매 회사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할 계획이며, 유통 업체명은 제품 허가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고종민 기자 kjm@

bithumb 빗썸

빗썸 지수 (2019년 1월 15일 17:00, KST)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매출 늘었지만 영업익 추락... BW 흥행 여부 주목

상장사 재무 분석

에스아이패널

에스아이패널이 25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 발행의 흥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수년간의 설비투자로 매출 등의 외형은 커진 반면, 영업이익의 창출 부진으로 현금 흐름이 악화하면서 차입금 상환과 운영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에스아이패널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50억 원 규모로 분리형 BW를 공모 발행한다. 표면과 만기 이자율은 각각 2%, 4%이며 행사금액은 5725원, 행사 기간은 2월 28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에스아이패널은 BW 발행으로 마련한 자금을 1회 전환사채(CB)와 단기자

최근 3년간 설비투자 1000억 영업익 부진에 현금흐름 악화 250억 규모 분리형 BW 공모 차입금 상환 '급한 불' 끄기

입금 상환, 원자재 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에스아이패널은 현재 샌드위치패널, 우레탄 단열재, 테크플레이트 등의 제조·판매를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설비투자에 1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쏟아부었다. 이에 건축외장용패널의 캐파는 2014년 1975㎡에서 5690만㎡로 증가했고 우레탄보드 1000만㎡, 컬러강판 40만 톤, 테크플레이트 360만㎡, 모듈러 주택 1400채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는 2015년 2617억 원에서 이듬해 3061억 원으로 늘었고

에스아이패널 재무·실적 추이 (단위 : 천 원)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
매출액	261,724,632	306,116,510	393,503,262	308,455,450
영업이익	14,956,104	9,241,387	9,516,191	5,666,679
당기순이익	7,683,158	1,592,119	489,776	2,505,450
영업이익률	5.71%	3.02%	2.42%	1.84%
부채비율	329.20%	385.40%	201.30%	175.00%
이자보상배율	3.5배	1.9배	1.9배	1.5배
유동성 차입금비중	62.20%	63.10%	65.40%	68.70%

2017년에는 3935억 원으로 커졌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은 308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15년 150억 원에서 2016-2017년 90억 원대로 줄었고 작년에는 57억 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2015년 5.71%에서 1.84%까지 떨어졌다. 주요 원재료인 우레탄원액(MDI) 등의 원가가 오른 탓이다.

여기에 설비투자와 해외 종속회사 등

과 관련한 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외부 차입으로 조달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것도 현금흐름을 악화시켰다. 총 차입금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403억 원이며 차입금 의존도는 41.7%, 부채비율은 175.0%다. 2016년에는 부채비율이 385.4%에 이르기도 했지만 2017년 진행된 유상증자에 부채비율을 낮췄다. 이에 영업활동현금흐름도 2015년 127억 원에

서 2016년 -114억 원으로 악화했다. 2017년 3억 원으로 개선되는 듯했지만 작년 -178억 원으로 급격히 추락했다.

에스아이패널은 이들 차입금 중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성 차입금 비중이 68.7%(964억 원)인 것을 고려해 이번 BW 조달 자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우레탄 패널, 단열재의 원재료인 MDI의 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설비 투자의 일단락으로 자본 지출의 축소가 예상돼 그나마 다행이다.

나이스신용평가한정대 연구원은 "설비 투자가 일단락됨에 따라 자본적 지출은 이전 대비 축소될 전망이다. 운영자금 부담으로 부진한 현금흐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기간에 의미 있는 차입 부담 완화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남호 기자 spdran@



'2018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부스 사진제공 유비케어

카카오 손잡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확장

기업탐방

유비케어

1994년 12월 병원 의료정보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비케어는 계열사 9개사를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다. 현재 기반사업인 솔루션 사업과 성장사업인 유(U)-헬스케어 사업을 벌이고 있다.

솔루션 사업의 경우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의료 시장에 필요한 서비스와 기기를 유통하는 방식이다. 특히 의원용 EMR(전자의료기록)를 업계에서 처음 개발한 이후 현재 전국 의원의 45%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유-헬스케어 사업은 기업 임직원 및 일

모바일 어플로 예약·접수 서비스 카톡과 연계 환자 대기순서 알림

9개 계열사 거느린 코스닥 상장사 주력사업 EMR 국내 점유율 1위

반인에게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분기 기준 기반사업의 비중이 아직은 압도적인 상황(98.6%)이다.

유비케어의 지난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한 717억 원, 영업이익은 34.4% 늘어난 77억 원이다. EMR의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B2C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한 결과다.

이상경 유비케어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력 사업인 EMR가 국내 병·의원 시장점유율 1위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다양한 자사 서비스의 기능 및 품질을 고도화하며 제품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와의 제휴 및 협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유비케어는 자사 EMR 프로그램인 '의사랑'과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 '똑닥'을 연계해 모바일 예약·접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카카오 톡과 연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에게 대기 순서 알림 서비스도 출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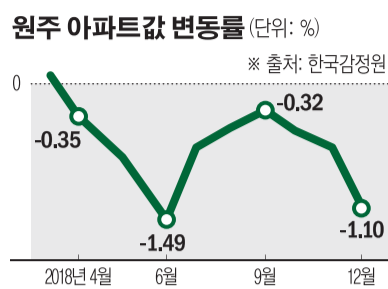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의사랑 사전 점검' 서비스의 범위를 자동차보험으로까지 확대했다. 유비케어 측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환자는 2015년부터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자동차보험 진료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 솔루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베타버전을 출시했으며 추후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등 자동차보험 환자를 다수 보유한 병·의원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병의원 고객관리 솔루션 '플러스CRM 모바일 버전'을 출시하는 등 병의원에 제공하던 기존 EMR 서비스에 자체 개발 서비스를 접목시키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내리막’ 원주 아파트, 과잉공급 시름

양도세 증가 매수 위축에도
입주물량 9000가구 대기



강원 원주시 아파트값이 지난해 4월부터 내리막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 규제에 의한 매수 심리 위축에 과도한 입주물량이 더해지며 주택경기가 얼어붙은 것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원주의 아파트값 변동률은 6.34% 하락을 기록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경남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주 아파트값의 본격적인 하락은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증가하기 시작한 4월부터 시작됐다. 원주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원주기업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매물이 대거 등장해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원주 아파트 입주물량은 6502가구로, 하반기 원주기업도시에서만 롯데캐슬더퍼스트

트 1·2차, 호반베르디움 1차, 라온프라아트 등 3954가구 입주가 이뤄졌다.

특히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2600가구 가량 증가한 9186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대 물량이다. 이는 34만 인구 도시에 과도한 입주물량으로 평가되며 가격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원주 반곡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 기조를 가져가는 상황에서 원주 아파트값이 반전하긴 힘들 것 같다”며 “입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2년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검단·위례서 ‘3만 가구’ 쏟아진다

1·2기 신도시 기반 시설 조성 마쳐며 실수요자들 관심 집중
올 검단 1만 가구·옥정 6700가구·북위례 5000가구 등 예정

올해 검단, 위례를 중심으로 기존 신도시에서 지난해보다 3배에 가까운 3만1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반 시설 조성이 끝난 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신도시에서는 3만1090가구(임대 제외)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검단 1만335가구 △양주 옥정 6703가구 △위례 5293가구 △파주 운정 2792가구 △평택 고덕 2683가구 △대전 도안 2565가구 △동탄2 553가구 △분당 166가구 등이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첫 분양이 시작된 검단신도시 분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분양이 끊겼던 위례신도시도 ‘북위례’를 중심으로 3년 만에 분양이 재개된다. 실제로 두 지역에서만 전체 절반 이상인 1만 5628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매년 수요 대

올해 신도시 주요 분양 단지

단지명	총 가구수	분양 시기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1268	분양 중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1540	2월
검단 파라곤	887	2월
힐스테이트 북위례	1078	3월
위례신도시 우미린 1차	875	3월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422	10월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2차	1859	4월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3차	1086	8월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710	2월
파주 운정지구 중흥S-클래스	1262	4월
파주운정1차(가칭)	820	4월
평택 고덕파라곤II	654	6월
고덕 대광로제비앙	639	8월

*분양일정 등은 건설사 사정으로 달라질수 있음.

비 공급량이 적었던 신도시에 신규분양이 대거 예정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한 정부가 2기 신도시 쪽으로 서울 지하철 연장 방안을 대거 포함시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선 최근 관심이 높은 검단신도시에서 10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검단신도시 AB15-1블록에서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74~84㎡, 총 1268가구로 구성된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은 역세권

으로 단지 바로 앞에 인천 1호선 검단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 신설 역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2월에는 대우건설이 검단신도시 AB16블록에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를 분양할 계획이고 같은 달 동양건설산업은 검단신도시 AA14블록에 ‘검단 파라곤’을 선보인다.

강남권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위례신도시에서는 3월부터 올해 8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3월에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3월 선보일 예정이다. 우미건설은 3월에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 A3-4b블록 전용면적 102~154㎡ 875가구를 분양하고, 2차로 A3-2블록에서 전용면적 99~112㎡ 422가구 ‘위례신도시 우미린 2차’를 10월 공급할 계획이다.

이올러 양주 옥정신도시에서는 중견사 분양이 이어진다. 대방건설은 양주 옥정신도시 A4-2블록에 ‘양주옥정 대방노블랜드 2차’ 전용면적 76~107㎡ 1859가구를 4월에 내놓는다.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대우건설이 운정신도시 A14블록에서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2월 분양할 계획이다.

4월에는 중흥건설이 운정신도시 A29블록에 파주 운정지구 중흥S-클래스를 공급하고 대방건설도 운정신도시 A-28블록에 ‘파주운정1차’ (가칭) 820가구를 분양한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서울 5개 구청 “주택 공시가 너무 올라”

국토부 찾아가 이의제기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국토부와 서울 일부 구청들에 따르면 최근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등 서울의 5개 구청이 10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찾아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가격이 높으며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구청은 한국감정원에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해 감정원이 현장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포구청도 개별적으로 세종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단독주택 22만 호의 공시 예정가격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용산구 이태원과 한남동,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 등에 있는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50~60%, 최대 2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권 저가 주택과 지방 주택은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동구의 경우도 도심 서울숲 일대를 중심으로 일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최대 200%까지 상승했다.

일선 구청이 직접 국토부 청사를 방문해 표준주택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토부가 확정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직접 산정해야 하는데 표준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들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을 거쳐 이달 25일 2019년도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5일 가격 공시 이후에도 다시 이의신청 접수를 하고 3월 20일 조정공시가 이뤄진다. 일각에서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889건)의 두 배 이상일 것이라 추측을 내놓고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130대 1’ 위례포레자이 당첨자 최고 가점 79점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위례포레자이’ 당첨자 가점이 평균 6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업계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날 당첨자 발표를 한 위례포레자이의 당첨자 평균 가점은 66.3점으로 집계됐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이다.

최고 가점은 79점으로 전용 101㎡A 기타경기(하남시 외 경기)와 기타지역(서울), 101㎡B 기타지역, 108㎡T, 131㎡ 기타경기 등 4곳에서 나왔다. 또한 최저 가점은 101㎡B 해당 지역(하남시)의 51

점이었다.

위례포레자이가 위치한 위례신도시는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하남시에 30%, 그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지역(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한편 GS건설의 올해 마수결이 분양이자 북위례 첫 주자였던 위례포레자이는 분양가(3.3㎡당 평균 1820만 원)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3일 1순위 청약에서 487가구 모집에 6만3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높은 경쟁률에 비례해 당첨자 가점 역시 지난해 5월 같은 하남시에서 분양한 하남포월시티의 당첨 가점 평균인 63.9점보다 2.4점 더 높아졌다. 구성현 기자 carlove@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대고려 918·2018 그 찬란한 도전

GORYEO: THE GLORY OF KOREA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2018. 12. 4. TUE —
2019. 3. 3. SUN

특별전 Special Exhibition

Kazakhstan The Cradleland of the "Golden Man"

Казахстан – “Алтын адам” бесігі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

2018. 11. 27. 화
2019. 02. 24. 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실
Special Exhibition Gallery, National Museum of Korea

WHO 포·太 환경보건센터 서울에 만든다

환경부·서울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소와 양해각서 환경오염·기후변화 연구...5월 서울글로벌센터서 업무 개시

‘WHO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서울에 설립된다.

서울시는 환경부, WHO 서태평양사무소와 함께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의 서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서울시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센터장(3월)과 직원 선발 등의 준비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WHO 환경보건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유럽지역에 1개소가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이번에 서울에 최초로 설립되는 것이다.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 제시 △같은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대기질·에너지·보건 △기후변화·보건 △물·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이들 팀은 동북아 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생활화학물질, 수질 등 환경오염

으로 인한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환경부와 서울시에 기술·재무보고서를 매년 제공하고, 1년 차·5년 차·9년 차에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유해 화학물질,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가진 WHO 센터를 유치했다”며 “유형 환경보건센터가 미세먼지 기준을 제시해 국제 사회에 기여한 것처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도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미세먼지 등 지역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2018년 1월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 권리 조례를 제정, 환경보건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과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종합정보센터 설립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서울에 위치한 31개의 국제기구와 환경·보건분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가 아시아의 중심지(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설경진 기자 skj78@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설립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부터)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대차 갈등’ 공중폭발 사장 “건물주에 사과”

항소심 첫 공판서 선처 호소 檢 “최망치 폭행 고의성 충분”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본가 공중폭발 사장 김모(55) 씨 측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 변호인은 “1심 국민참여 재판에서 한 명만 징역 2년 6개월을, 나머지 배심원 다수는 징역 1~2년에 대한 양형 의견을 냈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고, 건물주와 갈등을 이어나갈 것으로 판단해 2년 6개월을 선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염모 씨와 렌터카 회사 측과 합의하려고 충분히 노력했고, 피고인은 1심 판결 이후 주된 피해자인 건물주에게도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공중폭발 가게에 대한 유치권 존재확인 소송도 취하해 유치권 행사를 종료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오랜 분쟁으로 인한 건물주에 대한 원한, 최망치 등 범행 도구 사전 준비, 반복적인 공격, 타격 부위가 치명적인 머리인 점 등을 보면 살해에 대한 고의성의 충분이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적용을 재차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성 여부가 주된 쟁점인 점을 고려해 다음 재판에서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직접 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린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모(61) 씨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해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행인 염모 씨를 차로 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대한 살인미수죄도 적용했지만 1심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씨는 건물주인 이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 씨는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했고, 김 씨가 받아들이지 않자 가게를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공중폭발을 강제 철거한 상황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이혼 재산분할 청구 때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

법원, 압류금지 예외적용

이혼으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소액 임대차보증금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1단독 이동희 판사는 10일 베트남 여성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소액 임대차보증금 가압류를 승인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 임차인 보호 규정에 따라 서울시 3700만 원, 세종시와 화성시 3400만 원 등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그간 법원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우선 변제 금액을 제외하고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우선 변제 금액에 대한 가압류까지 승인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윤한솔 기자 charmy@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y Life
2019. 01. 16. / 98p

특별기획: 1958
세계를 호령한 여배우 이연희
세상을 호령한 여배우 이연희
서울시 보물창고인 강연대 대표
이연희가 말하는 보물창고의 매력
이연희가 말하는 보물창고의 매력

COVER STORY: **광내고 기름칠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PART1. 고수의 품격 - 멈추지 않는 한, 누구나 인생 고수가 된다
PART2. 대한민국 고수를 모일 - 구구(gugu)가 되기 위해 온천 연휴협동조합
PART3. 도전의 고수 - 최고령 보디빌더 서정림 씨, 인스타그램 스타 김서재 씨
PART4. 생활의 고수 - 도시 속, 미용 고수 정성미용실 신성순 씨
PART5. 재능의 고수 - 외국에서 더 힘내는 섬유공예작가 이소라 씨
PART6. 숨은 고수를 다 모여 - '숨고'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
PART7. 누구나 고수가 될 수 있다 - 동년기자들의 답변

월레이징 머릿속 폭탄 뇌졸중, 의심되면 무조건 응급실 찾아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은 중장년의 대표적 질환 중 하나. 특히 겨울철엔 더욱 속을 썩인다.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시한폭탄인 데다, 후유증이 고생하는 주변의 시선을 보면 불안감은 배가된다. 게다가 '말년타임' 즉 발병 후 적당한 치료시기를 놓치면 남파라는 사실은 더욱 시니어를 속편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전문의들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서권익(徐權益)·4대 고수를 통해 뇌졸중에 대해 알아봤다.

박원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말리지 매 난 일박에 몰라
겨울 갈바람이 연차게 불어치는 산골이다. 마을의 품은 넉넉해 한창한 맛을 풍긴다. 산비탈 따라 층층이 들어선 주택들. 짐작보다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자랑할 게다. 가구 수는 50여 호. 90%가 귀촌이나 귀농을 한 가구다. 하, 귀촌 귀농 바람은 비아호르 거센 조류를 달아간다. 마을 이장인 김중용 씨 그는 이 마을에 임정한 1호 귀농인이다. 그의 소개나 추천에 이따금 이곳으로 향방이 귀촌한 차인들도 많다고.

신라비가 만난 사랑
잘 다스린 상처는 아픔을 견디는 힘이 된다
최현숙
구술생애사 작가

요만(약) 실려낸 영마의 음식'재민치 해와까지 일리코피 한식 전도시 배우 김수미

미나, 잠이 억새리를 만들고 절제가 찾아지게 한다
주한 외교관들에게 사랑받는 '폭터 김'

타박타박 도보여행 피란수도 부산의 추억을 더듬는 길 '초랑이바구길'
수도권 기온이 영하로 푹 떨어진 날, 부산역에 도착했다. 평소대로라면 부산역 옆 돼지국밥 골목에서 국밥 한 그릇 먹어보고 여행을 시작했을 것이다. 오늘은 초랑이바구길에서 사탕국국을 먹기로 했다. 구수한 사탕국국을 호호 불어기며 먹을 생각에 발끝이 빨라졌다.

머니테크 한겨울 녹이는 뜨거운 예금 열풍... 이자가 워글래 '고금리 안전지대로...'
코스피지수가 한때 연 고점 대비 20% 넘게 추락하는 등 격렬하게 요동치면서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이 크게 늘었다. 금융 전문가들은 2019년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내다본다.

시니어 밭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당뇨에 좋은 한 끼로 새해는 더욱 건강하게

부치지 못한 편지
꽃 피는 날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이규리 시민

올해 女임원 10명 승진... 고위직 성평등 인사 '마중물'

금융·보험업 유리천장 깨진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사람을 쓰는 일은 곧 모든 조직의 시작과 끝이다. 올해 시작을 앞두고 주요 금융사의 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눈에 띄는 특징은 '여성 임원' 강세와 1960년대생으로의 '세대교체'다. 특히, 올해 여성 임원 10여 명이 승진했는데 이는 앞으로 여성 임원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은행권, 여성 임원 증가 폭 ↑ = 주요 시중은행은 올해 인사에서 여성 임원의 수를 대폭 늘렸다. 비록 남성 임원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구성 가운데 한 자릿수 증가이지만 상징성은 남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최초 여성 임원'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앞으로 행보도 기대된다. 먼저, 신한금융지주 왕미화·조경선 본부장은 부행장보로 승진했다. 이들은 신한은행 역사상 최초의 여성 임원이다. 신한은행 내에서 총 3명이 승진(지주 제외)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상징성을 벗어나 여성만의 리더십과 세심함을 은행 전반에 이식하겠다는 신한지주의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소중견기업금융본부장은 심사평가단장과 수원지점장, 미래산업금융부장 등을 역임했다. 수은 측은 "앞으로도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남녀 차별 없이 발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은행의 여성 임원 증가세는 은행연합회로도 이어졌다. 은행연합회는 이경희 홍보실장을 상무이사로 임명했다. 은행연합회 역시 이번 여성 임원 발탁으로 총 2명의 상무가 근무하게 됐다. ◇여성 임원 '불모지' 보험업계 = 보험업계는 업계 특성상 남성 중심 조직 특성이 강하다. 이런 가운데 삼성화재는 이번 인사에서 오정구 송파지역단장을 상무로 발탁해 주목된다. 오 신임 상무는 대전 대성여상을



주요 여성 임원 프로필			
이름(나이)	왕미화(55)	조경선(54)	조순옥(54)
회사명(직책)	신한은행(부행장보)	신한은행(부행장보)	KB국민은행(준법감사인)
주요 약력	신한 PWM 강남센터장, WM사업본부장 등	원당금융센터장, 스마트컨택트본부장 등	무교지점장, 북부지역 영업그룹 대표 등
이름(나이)	정종숙(57)	송한영(57)	노유정(51)
회사명(직책)	우리은행(부행장)	우리은행(상무)	KB하나은행(본부장)
주요 약력	강남2영업본부장, WM그룹장 등	종로기업영업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본부장)
이름(나이)	김경자(55)	오정구(50)	
회사명(직책)	삼성화재(상무)	삼성화재(상무)	
주요 약력	서초지역단, 성남지역단 지점장, 송파지역단장 등	심사평가단장, 수원지점장, 미래산업금융부장 등	서초지역단, 성남지역단 지점장, 송파지역단장 등

신한·수은, 사상 첫 여성 임원... 국민·우리·하나도 발탁 보수 색채 강한 보험권, 삼성화재 필두 '女風' 확산 조짐

KB국민은행은 여성 임원을 3명 추가로 총원해 여성 임원 강세 기조를 이어갔다. 여성 최초 준법감시인에 임명된 조순옥 상무를 비롯해 김종란 신탁본부 상무와 이미경 IPS본부장 등이 중용됐다. 이에 국민은행은 기존 2명의 임원을 포함해 총 5명의 여성 임원이 포진하게 됐다. 우리은행 역시 여성 임원 2명이 승진했다. 정종숙 WM그룹장은 지난해 11월 부행장보로 승진했다. 이는 2015년 우리은행 최초 여성 부행장에 임명된 김옥정 부행장 이후 3년 만이다. 또 외환그룹 상무에는 송한영 본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KEB하나은행은 총 3명의 여성 임원이 등용됐다. 노유정 변화추진본부장과 백미경 소비자보호본부 전무, 김남희 남부영업본부 본부장 등이다. 또 금융공기업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창사 43년 만에 첫 여성 임원을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경자 신임 중

졸업한 뒤 1987년 입사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성별과 학력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른 인사 철학을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보험업계 여성 임원은 전체 비중이 여전히 10% 미만 수준이다. 일부 보험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을 정도다. 다만, 외국계 보험사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20~30%가량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여성 임원은 총 454명으로 전체의 3%에 불과했다. 산업별 여성 임원 비율에서 금융보험업은 3.7%로 도소매업(4.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금융보험업은 2016년 2.7%에 불과했지만 2017년 크게 상승했다. 또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분야에 금융보험업이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우먼파워' 세졌지만... 아직은 찾잔 속 태풍

올해 금융권 인사 키워드로 '여성'이 꼽혔다. 남성이 독식했던 핵심 부문에 여성이 임원으로 발탁된 것과 더불어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탄생한 영향이다. 이러한 인사는 이전보다 색다른 평가를 받지만, 달리 보면 그만큼 금융권의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 강했다는 의미다. 여전히 임원 명단의 대부분은 남성들이가 득한 상황이라 이번 '우먼파워'도 결국 찾잔 속 태풍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여성들이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긴 힘든 것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금융권 여성 직원의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은행권 창구 직원 5만8113명 가운데 여성은 58%(3만3585명)를 차지했다. 하지만

업계, 성별 할당제 도입 등 여성 비율 20%P 이상 올려야

금융그룹 여성 임원은 전체 임원의 3.9%에 그쳤다. 은행권은 "뺨을 여성이 없다"라고 항변하지만, 실제 지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여성 채용을 경시하는 문화도 남성 조직이 공고히 되는 이유 중 하나다. 특히 금융업계는 타 산업군보다 채용의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여겨졌던 곳이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에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모습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경향이 금융권의 고질적인 문제라면, 여성의 목소리를 더 키우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 펜실베이니아 연구진이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사회 구성

원들이 고정관념이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구성비율이 '25%'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관성에 익숙해져 있는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사람들'이 전체 구성원의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금융권 내에 접목해 반대로 해석하면 3.9%에 그친 여성 임원은 남성 위주의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없는 셈이다. 결국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깨고자 한다면 현 수준에서 여성 임원 비율을 20%포인트 이상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 다른 선진국에선 이미 여성할당제(여성에게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기술어진 운동장'을 일부 해소했다. 금융노조에서도 이를 위해 단체협약에 여성할당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객진산 기자 jinsan@

www.douzone.com
DOUZONE

올 A+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형)

Anytime 언제나
Anywhere 어디서나
Any Device 어떤 기기든
Anybody 누구나 쉽게 쓰고
Automatic 자동으로 처리되는

더존 Smart A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업무처리와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며, 수입 고객사 중요 거래 자료를 자동 수집, 분개 입력하여 가장 시간이 좋고 세무회계사무소의 전산권리와 보안 이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세무사님들께서 Smart A Cloud Edition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Smart A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장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입니까?

- 47% / 데이터 유출 방지
- 21% /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19% / 편의성(스마트워크)
- 13% / IT관리비용 절감

데이터 유출 방지	국가공인 전자문서센터가 운영되는 안전한 더존 클라우드센터에 Smart A 데이터 보관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매일 자동으로 거래내역 수집,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향상
편의성(스마트워크)	언제, 어디서나, 사무실 밖에서도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IT관리비용 절감	더존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강력한 데이터 보안

- 365일 24시간 보안관리 서비스로 바이러스는 물론, 해킹과 데이터 유출까지 차단
- Smart A에 입력된 데이터는 클라우드센터에 3중 백업 보관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가 클라우드센터에 보관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효력 발생

완전자동회계처리(슈퍼박)

- 수입처의 거래내역을 매일 자동으로 수집, 분개 처리하고 회계전표로 생성
- 회계표준 빅데이터를 함께 분석하여 회계처리의 정확도 대폭 상승
- 자료 수집, 입력 등 잔무 스트레스 해소, 기장 및 세무신고 시간 단축

스마트워크 환경 구현

-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 기기로 Smart A 사용, 조회 가능
- 수입처 방문 시 PC와 모바일 기기로 실시간 데이터 조회 및 상담 가능
- 주요 신고기간의 야근 및 휴산, 육아 고민 등 직면 복지 문제까지 해결

탁월한 비용절감

- 클라우드센터의 IT 인프라를 빌려 쓰는 방식이라, 각종 전산자원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사용자 PC가 노후화 되어도 빠른 속도로 업무처리 가능
- MS Office 라이선스 무상제공 / Smart A 전용 메신저 무상 제공

문의 1688-5000

이더리움클래식 '51%의 공격' 발생 이유는

가격 폭락에 채굴자 줄며 해킹 무방비



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이더리움클래식(ETC)이 최근 '51% 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공격의 위험이 있는데요. '51% 공격'이 무엇이며, 왜 이더리움클래식에서 일어났는지 알아보죠.

◇51%의 공격이란 =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코인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돼 다수의 합의에 의해 거래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어요. 해킹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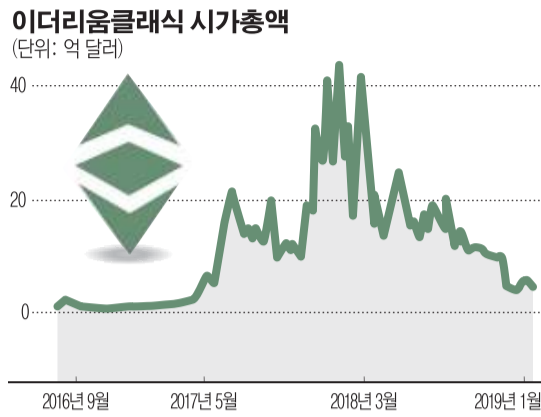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해킹하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터의 51%를 소유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는 한 대당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채굴기의 수를 고려했을 때 수백억 원 이상이 필요한 셈이죠. 채굴기를 보유한다해도 막대한 전기세를 감당해야 하는데, 이런저런 것을 모두 고려해 네트워크를 해킹했을 때 드는 비용보다 네트워크에 참여해 채굴 보상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채굴자(노드) 수는 1만~2만 사이에 변하고 있습니다. 채굴 참여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는 더욱 안전해지는데, 대체로 채굴기가 수천 대 이상 모일 때 안전성의 임계치(최소치)를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1%의 공격이 성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격자가 마음대로 채굴 보상을 조정하고, 임의로 코인을 복사(이중 지불)해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채굴량 100배 증가 포착 = 이더리움클래식은 '51% 공격'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보안 전문업체 '픽실드' (PeckShield)에 따르면 지금도 이더리움클래식의 '51% 공격(이중 지불)'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대로라면 이더리움클래식의 블록(기



1ETC당 가격	4.39달러
시가총액	4억7036만 달러(5273억 원)
일일 거래량	1억296만 달러
총 공급량	1억752만5451ETC
최대 공급량	2억1000만 ETC

※ 출처: 코인마켓랩

다수에 의해 네트워크로 관리 '코인' 최근 가격 하락에 채굴자 이탈 늘어 네트워크 참여 컴퓨터 51% 장악 땀 임의로 코인복사 채굴보상 조정 가능 시총 18위 코인 해킹노출 투자자 긴장 현실적 대책 신규코인 분화 '하드포크'

록 단위)당 채굴 보상은 4ETC인데요. 최근 200~300ETC가 채굴되는 등 네트워크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블록당 최대 424 ETC가 채굴됐다고 하니, 정상치보다 106배가 많이 채굴된 셈이죠.

거래 수수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15일 하루에만 0.71달러에서 800% 상승해 6.1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현재 시세가 4.37달러인데, 소액을 전송하려면 전송량 이상을 수수료로 내야 할 정도네요.

그런데 공급량이 생깁니다. 가상화폐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건 틀린 말일까요. 앞서 '51% 공격'이 성공하려면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 51% 이상을 장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선 최근 가상화폐 시세가 폭락하면서 많은 채굴자들이 채굴기를 팔고 업계를 떠났습니다. 코인 가격과 함께 채굴기 가격까지 폭락했고, 네트워크 공격에 필요한 비용이 현저히 낮아졌

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이더리움클래식 개발자인 도날드 매킨타이어도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는 블로그를 통해 "ETC는 아직 51% 네트워크 공격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며 "아직 이런 상황이 왜 발생했는데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내부 문제가 아닌 네트워크 규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코인 위험성은 얼마나 = 이더리움클래식의 시가총액은 4억7036만 달러(5273억 원)로 전체 코인 중 18위입니다. 10위권은 아니지만, 여전히 높은 시총을 갖고 있는 코인이죠.

시가총액 5000억 원이 넘는 코인이 네트워크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클래식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코인들의 위험은 없는 걸까요.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이더리움클래식과 언젠가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한 가지 대책은 있습니다. 바로 '하드포크(Hardfork)'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이더리움에서 발생했었죠. 2016년 6월 다오(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라는 프로젝트가 해킹당하면서 수백만 이더(ETH)가 도난당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이 너무 컸고, 이더리움 재단(ET)이 '다오 프로젝트'의 스마트컨트랙트(자동이행계약)의 감사(리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원상복귀하기 위해 분리해낸 코인이 지금의 이더리움이고, 해킹된 상태를 이어간 코인이 이더리움클래식이죠. hura@

시장 이모저모



모건 크릭 창업자 "비트코인 곧 바닥 찍을 것"

미국 자산운용사 모건 크릭 디지털셋 창업자인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비트코인이 더 이상 추락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외신에 따르면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이 곧 바닥을 칠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 및 다른 가상화폐들이 2019년에 급격한 회복(drastic recovery)을 시작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은행에 대해 회의적이며 분권주의자인 팜플리아노는 "비트코인이 더 하락하는 대신 올해 상당 기간 2500~4500달러에서 거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日 정부 "비트코인 ETF 필요성 인식 못해"

일본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현재로서는 ETF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 대변인은 일본은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블룸버그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일본이 비트코인 선물의 대안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올 2월 말 결정할 반에크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증폭됐다. 주요 시장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는 투자 대상의 출현으로 가격 조작의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네오 창업자 "이더리움, 비트코인 넘어설 것"

가상화폐 네오(NEO)의 공동 창업자 에릭 장(Erik Zhang)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언젠가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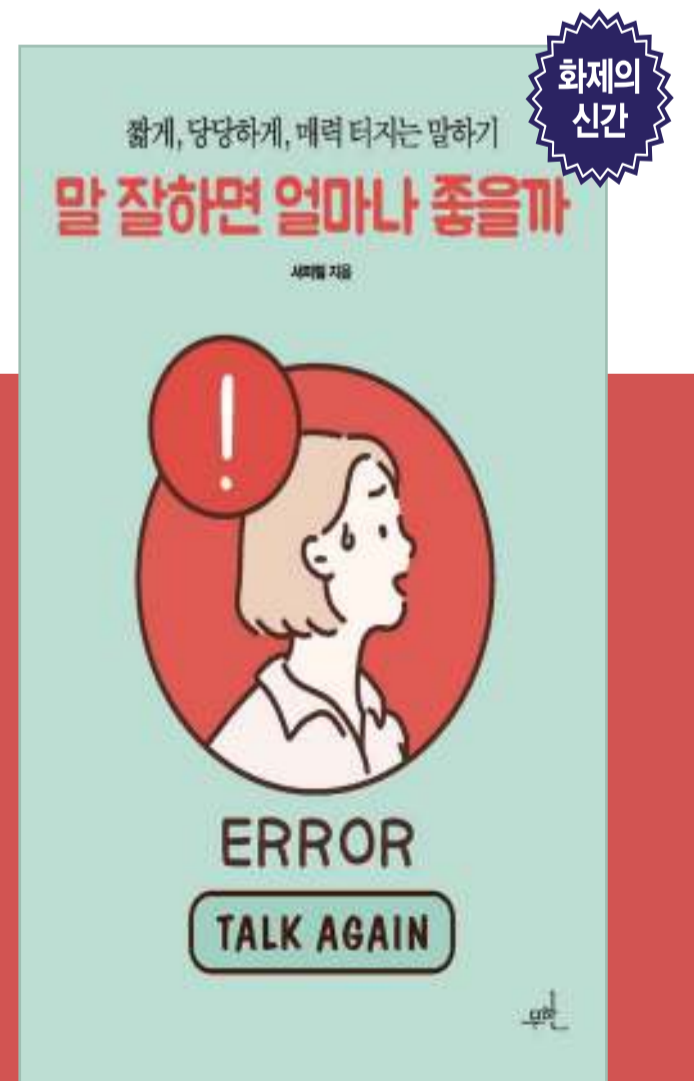
외신에 따르면 최근 에릭 장은 "이더리움은 언젠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러나 이더리움도 네오와 같은 후발 프로젝트와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더리움은 '위대한 프로젝트'이며, 네오가 '중국의 이더리움(Chinese Ethereum)'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대한다"며 "네오는 중국에서 착안했을 수도 있지만, 전 세계 개발자들이 기여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2019년에는 '짧게, 당당하게, 매력 터지게' 말해보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할 때, 평소 대화할 때, 상대를 설득을 해야 할 때 이 책의 말하기 기술을 떠올린다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들을 발판삼아 '당당한 나, 매력적인 나'의 모습을 찾아보자!

- 상대의 '심리를 지배하는' 말하기
- 상대의 '마음을 훔치는' 말하기
- 상대를 '행동하게 만드는' 말하기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 반값 할인

새해맞이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건강한 기해년이 되고자 프리미엄 할인 행사!!!



- 가정용**
- 제품명 뉴아쿠아픽(좌측)
모델명 AQ-300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제품크기 150x90x210mm
맥동수류 2,200회/분
- 휴대용**
-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모델명 AQ-220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제품크기 70x100x300mm
제품무게 440g(본체 260g, 충전기 180g)
맥동수류 1,400회/분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아쿠아픽 제품만의 강력한 맥동수류

아쿠아픽의 강력하고 뛰어난 맥동수류(탁탁 끊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잇몸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p>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p>	<p>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p>	<p>임플란트 주위염 예방</p>	<p>하나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 (4개의 제트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장치, 임플란트, 보철물 등의 장착 환자 추천 ● 분당 평균 왕복 2,200회 맥동수류 ● 구강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 기능성/편리성/만족성을 모두 갖춘 뉴아쿠아픽!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조작 -수압 조절 가능한 다이얼 -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호스 (한국·일본·유럽연합통합전기용품안전인증) 	<p>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편리해진 무접점 충전방식 ● 24시간 완충 시 최대 2주 사용 가능 ● 0.6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60g)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 인체공학적 제트립 설계 ● 세가지 세정모드 -NORMAL 일반적인 세정모드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정모드 -PULSE 잇몸 마사지 전용 모드
--------------------------------------	-----------------------------------	---------------------------	--	--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 온라인 주문 www.arambi.kr

“명함 지도가 뭐냐고요? 비즈니스의 길 열어드리죠”

명함 앱 '리멤버'...최재호 드라마엔컴퍼니 대표

등록된 명함 주소 활용해 지인들과 만남 기회 제공 취지
개인 실시간 위치 서비스는 하지 않을 것, 사생활이니까...

“명함을 통해 인맥 관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명함 앱 '리멤버'를 서비스하고 있는 최재호(36·사진) 드라마엔컴퍼니 대표가 올해부터 등록된 명함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명함 주소록을 기반으로 주변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명함지도' 서비스를 내놨다. 명함지도 서비스는 사용자가 특정 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인맥들의 위치를 보여준다. 인맥들에게 받은 명함을 등록하면 주소를 기반으로 위치를 보여준다.

최 대표는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네트워크의 범주가 넓지 않지만 명함은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다”며 “항상 떠올리지는 못하지만 명함을 통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서비스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위치를 방문했을 때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확인해 보고 오랜만에 연락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그는 “명함지도는 자신이 설정한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명함을 찾을 수 있어 오래 전 만났던 인맥들과 연결될 수 있다”며 “사용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나이 있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명함지도를 통해 개개인의 실시간 위치찾기 서비스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명함을 기반으로 GPS에 등록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개인의 사생활 문제가 있는 만큼 해당 서비스는 철화했다는 입장이다.



최 대표는 “명함 실시간 위치 확인은 유료라도 사용하겠다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요구가 많았지만 결국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명함 주소를 기반으로 한 위치 확인만으로도 충분히 고객들이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명함지도 외에 앞으로 인맥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를 구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명함에 등록된 사용자에게 연말 인사를 보낼 수 있는 연하장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이러한 명함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달까지 명함 무료 스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한 주소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모임주소록은 동문회나 업계 네트워킹 모임 등에서 멤버들의 주소록을 명함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운영자가 리멤버 앱에서 모임주소록을 만들고 링크로 모임 멤버들을 초대하면, 멤버들이 올려둔 본인 명함 정보들로 주소록이 완성된다. 이 주소록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멤버 전부가 함께 볼 수 있으며, 모임 구성원들의 직장 정보와 연락처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최 대표는 “명함의 가치를 등록해서 연락처를 찾는 것이 아닌, 이를 활용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업무에 있어서도 만났던 사람들만 찾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을 지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사진제공 드라마엔컴퍼니

나노스, 김형기 전 차관 고문 영입

나노스가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나노스는 대북전문가 영입을 통해 남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나노스양선길 대표 이사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김형기 고문 영입은 남북 사업의 본격적인 신평단”이라며 “나노스와 관계된 사업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우호적인 남북관계 분위기를 살려 전문가의 시각에서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1년생인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은 경기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통일원 기획담당관 보좌관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통일부 정책실장, 통일부 차관, 각종 남북회담 대표를 역임했다. 김 전 차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남대와 연세대에서 객원교수로 재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종민 기자 kim@

게시판

LS,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 기부

LS그룹이 새해를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억 원을 기탁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원형 LS그룹 부사장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만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지역사회 유·청소년 교육과 소외 및 취약 계층의 환경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KCC도 공동모금회에 20억 기탁



KCC가 14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소득층 가정 및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20억 원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주공장, 대죽공장, 울산공장 등 KCC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사회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부금이다. 서울 중구 위치한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황홍석(사진 왼쪽) KCC 이사, 김연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김효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이사가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키움이어로즈 창단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키움이어로즈

키움이어로즈 창단...“키스톤 콤비로 멋진 승부 보답할 것”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키움과 히어로즈가 키스톤 콤비(유격수와 2루수의 콤비 플레이)가 돼 한국 프로야구를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

15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키움이어로즈 창단식이 진행됐다. 자리에는 이현 키움증권 대표를 비롯해 박준상 키움이어로즈 대표, 정운찬 KBO 총재 등 관계자와 박병호, 이정후, 최원태, 김하성, 서건창 등 구단 선수들이 함께했다.

이현 키움증권 대표는 이날 “키스톤 콤비는 가장 타구가 빠르게 오는 유격수와 2루수의 혼연일체를 의미한다”며 “키움과 히

어로즈가 키스톤 콤비가 돼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보답하고 팬들에게 멋진 승부를 보여주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KBO 총재는 “앞으로 5년간 키움증권이라는 안정적인 스폰서와 함께하게 된 히어로즈 구단에 축하드린다”며 “프로야구 산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키움이어로즈의 출발은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키움증권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서울이어로즈의 네이밍라이즈(Naming Rights)를 행사한다.

고대영 기자 kodae@

농협 ‘한마음 전진대회’...김병원 회장 “농가소득 5000만원으로”

농협이 15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유관순체육관에서 임직원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同心同德(동심동덕) 2019 범농협 한마음 전진대회’를 열고 지속경영 성장과 농업·농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박원주·정운천 국회의원, 구본영 천안시장이 격려사를 했으며 부문별 사업계획 발표, 김병원 회장의 특강, 사업 추진 결의 등이 이어졌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김병원(사진) 회장은 “지난 3년간 농협의 존재 가치인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위해 협동조합 정체성 확립, 영농 자재 가격 인하, 농산물 수급조정, 쌀 가공제품 소비 증진, 범농협 계열사 경영혁신 등을 추진해 농가소득 증대, 농업인과 도시민의 농협에 대한 인식 긍정적 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수를 초빙해 일본의 과학 교육에 대한 세미나도 실시한다. 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시찰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93명의 교사가 시찰에 참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두산연강재단, 과학교사 학술시찰

두산연강재단은 14일부터 21일까지 초·중·고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제13회 과학교사 학술시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이 주관하는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자 36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7박 8일 동안 경남 창원시의 산업 현장과 일본 오사카, 나고야, 도쿄의 과학관과 기업체, 고등학교 등을 방문해 과학기술과 교육 현장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히라노 도시히데 아이치대학교 교



수를 초빙해 일본의 과학 교육에 대한 세미나도 실시한다.

두산연강재단은 2007년부터 ‘올해의 과학교사상’을 수상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시찰을 진행해 왔으며, 지금까지 총 493명의 교사가 시찰에 참가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사

◆기획재정부 <실장급 전보> △차관보 방기선

◆코트라 <해외무역관장 전보 및 파견> △충남미지역본부장 겸 멕시코시티무역관장 김기중 △오사카무역관장 최장성 △토론토무역관장 정영화 △나고야무역관장 김성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장 박강욱 △오클랜드무역관장 강신화 △첸나이 무역관장 한정희 △뉴욕무역관 부관장 박동욱 △도쿄무역관 부관장 김경미 △항저우무역관장 이돈기 △카사블랑카무역관장 나범근 △아비장무역관장 이연주 △아바나무역관장 이정훈 △바르샤바무역관장 권창호 △워싱턴무역관장 박지웅 △키토 무역관장 양성훈 △과테말라무역관장 안성희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 △연구사업 본부장 주무현 <실·센터장> △고용정보서비스실장 <기획정보보호본부장 직무대리>

박건욱 △일자리플랫폼실장 조운주 △정보화운영실장 정영현 △청년정책허브센터장 정연순 <팀장> △고용정보서비스실 정보화기획팀장 임채환 △일자리포털개발팀장 지한수 △워크넷취업지원팀장 송은주 △외국인력팀장 정경화 △일자리플랫폼 플랫폼운영팀장 송문섭 △플랫폼개발팀장 김중범 △기획조정실 성과관리팀장 변상혁 △인사교육팀장 백광호 △국제협력팀장 윤지영 △국가고용정보개발센터권립 추진단장 임승수 △고용서비스전략실 고용서비스혁신팀장 양지윤 △고용서비스품질팀장 김호원 △생애진로개발팀장 서현주 △미래직업연구팀장 최영순 △청년정책허브센터 청년정책연구개발팀장 고재성 △청년정책모니터링팀장 전영민 △온라인 청년센터 기획운영팀장 정동열 △고용정보 분석센터 고용동향분석팀장 김준영

◆BK기업은행 <승진> ◇지역본부장급 △남부지역본부 전병성 △남중지역본부 문창환 △경동·강원지역본부 이희만 △부

산지역본부 김상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김대진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안순홍 △호남지역본부 조성수 △영남부 김흥철 ◇WM센터장 △부산WM센터 김수미 <전보> ◇부행장 △리스크관리그룹 손현상 ◇지역본부장급 △강서·제주지역본부 박희성 △서부지역본부 정광후 △부산·울산 지역본부 조기현 ◇본부·부서장 △기업지원센터장 최낙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이동원 △기관고객부 박춘우 △개인고객부 임형준 △개인여신부 정용원 △카드사업부 김문년 △수탁부 이혁주 △개인디지털채널부 최정탁 △경영관리부 차재영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손근수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홍덕관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장경중 △인천여신심사센터 김재수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동환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경홍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진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화영 △부산울산여신심사센

터 김두연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병주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나경수 △호남여신심사센터 정형남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계성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제갈재영 △기업개선부 박종덕 △인사부 이병철 △인력개발부 정성수 △직원행복부 유경철 △프로세스혁신부 김유철 △경영지원그룹 송주용 △IT금융개발부 조규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김일두 △홍보부 윤동희 △준법지원부 민병조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진규 ◇WM센터장 △강남WM센터 최희숙 △목동WM센터 윤기오 △반포자이 WM센터 전길구 △한남동WM센터 안호균 △창원WM센터 임귀웅

◆ABL생명 <승진> △이사대우 인적지원실 이상운

◆메리츠화재 <임원 신규선임> △STRUCTURING본부장 상무보 노선호

◆소비자경제 △편집국장 김영옥 △취재부장 박광선

부음

▲이환준(전 DB손해보험 부사장) 씨 별세, 이은지(페덱스코리아 과장)·유선(한국전력 대리) 씨 부친상, 정창기(맥쿼리캐피탈코리아 과장) 씨 장인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13호실, 발인 17일, 02-2258-5940

▲강신정 씨 별세, 오영호(전 코트라 사장,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씨 모친상 = 14일,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17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7

▲민인홍 씨 별세, 민동현·동휘(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팀장) 씨 부친상 = 15일,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오전 7시 30분, 042-280-8181

▲임정숙 씨 별세, 최진(래피드어드벤처 대표) 씨 모친상 = 14일, 전북 순창군 현대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6일 오전 10시, 063-653-4444

조석의 遠見明察

(원건명칭)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 지식경제부 차관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며, 미래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가 과거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현재의 우리가 하는 그만큼이 미래의 후배들에게 남겨지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황금 돼지의 해라고 불리는 기해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다. 돼지꿈을 꾸기 바라는 우리들의 심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에 대한 바람을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새해 아침 새로운 1년을 다짐하는 많은 결심과 더불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비록 새해 아침에 들려오는 울 한 해에 마주할 각종 전망들이 암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부푼 희망과 담대한 용기가 있기에 우리는 또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마주할 도전이 만만치 않기에 더욱더 손잡고 힘을 합쳐 극복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같고 닦았던 집단지성을 발휘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나이 드신 장모님을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면서 느꼈던 어르신들의 병원에서 생경함을 생각하다 보니, 아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었다. 부모님이 아프고 돌아가신 때가 어언 20년을 훌쩍 지나 30년이 되어 간다.

1990년대 초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낙향을 결심하신 아버님을 위해 어머니는 높은 시부모님과 함께 시골집으로 내려가셨다. 우리는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님 병문안을 이유로 시골집에 내려갔다. 대둔산 자락에 자리 잡은 그 시골집 앞에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고 우리는 병문안보다는 아이들과 시골 생활을 즐기고 돌아오곤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얼굴 보여준 자식과 손주들이 마냥 귀해서 병든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던 지친 몸으로 그 좋은 음식 솜씨를 발휘하여 맛있게 먹게 하고 바리바리 손에 들려주시기까지 했다. 그렇게 시골집을 다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힘들었던 기억은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만이 남는 걸 보니 부모에 대한 자식의 생각이 얼마나 천성적으로 불효한 것인지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현재는 미래의 과거이며, 미래의 모습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예측할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경제적 풍요가 과거 선배들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었다. 현재의 우리가 하는 그만큼이 미래의

후배들에게 남겨지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선배들은 한 톨의 석유도 나지 않는 나라에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에너지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두 차례의 석유 위기도 극복했고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중화학 공업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차례이다. 우선,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성 높게 사용하는 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남겨줘야 한다. 무엇보다도 방사성 폐기물과 같이 오랜 기간 남겨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단기간에 어렵다면 최소한 처리방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전기를 현재대가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후배들에게 남겨 두는 일은 책임 있는 어른이 할 일은 아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싸움을 멈추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세대

의 집단지성을 모아 해법을 마련하게 되기를 바라 본다.

3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지금에야 부끄러움과 함께 당시 어머니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깨우쳐진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다가온 이 깨우침의 정체는 무엇일까? 부모에게 받은 만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족함이 곧 나의 삶의 모습이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깨우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리고 경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달라지는 것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면 냉엄한 역사의 평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과 여건이 어쩔 수 없었어'라는 핑계만을 앞세운다면 역사의 부정적 평가는 우리 세대 모두가 함께 져야 할 부끄러운 몫이 될 것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갈 수는 없지만, 과거로부터 다가온 타임머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치는 우리가 되고 싶다.

정책발언대



이필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4차산업혁명위원회 ICO권고안과 '사기 공화국'

지난해 12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위원회 2기의 과제로 '민관 팀플레이의 진화', '대국민 공감대 형성 강화'를 언급하며 헬스케어·스마트시티 특위는 지속하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공개(ICO)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율 1위이고 2015년 이후 사기 범죄 수가 절도 범죄 수를 앞질렀다는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 발표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위의 ICO 관련 발언과 사기 공화국이라는 통계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 위원장은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가상화폐 공개, ICO 건들을 보면 사업의 구체성이나 자금 반환 절차 등에서 "크게 미흡하다"며 "당분

간 허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고, 일부는 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검찰·경찰과 공조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과 법원은 사기 범죄에 대한 판단에 있어 투명해지는 사회를 반영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과 관련해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체의 운영상 어려움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전문적인 사업에 있어서 전문 자격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업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한 경우에는 사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검찰과 법원의 사기죄 판단 경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ICO는 'Initial Coin Offering'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로 백서를 공개하고 신

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투자자들로부터 사업 자금을 모집한다.

문제는 코인 발행과 백서 공개에서 시작된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기업이 공개하는 백서를 100% 이해하고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 또는 코인 가치에 집중해 ICO에 임하게 된다. 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명확한 백서 공개가 없거나 백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활용 가능성이 없는 코인 발행 등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ICO 관련 백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 관련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내용 및 진행 사항에 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국적 기업 정서상 다수의 ICO가 사기로 보일 여지가 다분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4차 산업혁명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

다. 금융위와 법무부는 투자자 보호를 중시할 수밖에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 발전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 최근 법안의 제출 및 정책 논의 중심이 정부에서 국회로 옮겨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 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정당의 정책, 국회 토론회를 보면 정치권은 기본적으로 ICO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백서 검증 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ICO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해 현재의 모습으로 ICO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사기를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김영랑 시인의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본명이 김윤식(金允植)인 시인. 그의 대표작 '모란이 피기까지는'의 마지막 시구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지조 있는 시인이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때 후퇴하던 북한군이 쏜 난 민 유탄에 맞아 사망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903-1950.

☆ 고사성어 / 호사다마(好事多魔)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이 따른다거나 좋은 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금(金)나라 때 동해원(董解元)이 지은 '서상(西廂)'에 나온다. "참으로 이른바 좋은 시기는 얻기 어렵고, 좋은 일을 이루려면 많은 풍파를 겪어야 한다." [眞所謂佳期難得, 好事多魔]

☆ 시사상식 /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주식 공개 상장을 뜻한다. 증시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그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팔고 재무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천불
'하늘이 내린 불(天火)'이라는 뜻으로, 저절로 일어난 불을 이른다. '천불이 나다'는 관용구다. '열기가 날 정도로 몹시 눈에 거슬리거나 화가 나다'는 뜻. "속에서 천불이 나서 못 견디겠네"처럼 활용된다.

☆ 유머 / 천불날 일
의사가 환자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며, 검사 결과를 얘기했다. 나쁜 소식을 묻자 "암입니다. 2년 살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좋은 소식을 묻자 의사가 대답했다. "치매가 걸렸습니다. 두어 달 지나면 제 가 한 말을 모두 잊어버릴 겁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피고인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 합니다."

재판장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때 쓰는 단골 멘트다. 어쩌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일종의 '통과의례'일지도 모른다. 2000만 원의 사기로 고작 몇 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람도 구속되는 마당에 법정구속을 피해갈 용자가 몇이나 될까.

가끔, 용케 구속을 피해 가는 이들도 있다. 최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 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연히 법정구속될 줄 알았던 그에게 재판부는 의외의 말을 남겼다.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

뒤이은 재판에선 남학생이 성범죄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리

기지사침



윤한술 사회경제부/charmmy@

알다가도 모를 법원

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무얼 기준으로 도망의 우려를 달리 판단했을까. 한 사람에게 방어권이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방어권이 필요치 않았던 걸까. 전직 검사와 학생이라는 신분의 차이에서 비롯된 판단은 아니었을까. 혹은 두 사람의 속마음이라도 읽은 것일까.

문득 한 부장판사의 말이 떠올랐다. 판

사 생활만 30년째인 그는 "실형이 선고되면 누구든지 다 도망가고 싶어 한다"며 "대부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남녀노소, 직업, 범죄 종류 등 그 모든 것을 불문하고 구속을 피하고 싶은 건 매한가지라는 의미였다.

이 학생의 혐의점이 전직 검사에 비해 무겁진 않지만 혐의 자체가 도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교적 가벼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덜 도망가고 싶은 것은 아니고, 죄질이 좀 더 불량하다고 해서 더 도망가고 싶은 것은 아니다. 전직 검사라고 해서 학생보다 구속에 더 무덤덤한 것 또한 아닐 것이다.

어디 이뿐일까. 전직 국정원 국장과 전직 은행장을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기업인을 구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망의 우려를 판가름하는 데 있어서 법원 나름의 기준이 있겠지만, 정말 알다가도 모를 기준이다.

재판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표현을 종종 듣는다. 거꾸로 법원에 묻고 싶다. 도망의 우려,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증명됐습니까?

내가 더 이상 아이폰을 사지 않는 이유

오랫동안 애플의 스마트폰을 써왔다. 애플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을 세상에 내놓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옥. 아이폰을 통해 무료 통화를 하고, 무료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쁜인가. 인터넷에 접속해 검색을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뉴스를 읽고, 음악을 듣고,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외에 있는 지인들의 소식을 접한다. 애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충성스러운 고객도 없지 않다.

하지만 내 아이폰은 최신 모델이 아니다. 2017년에 아이폰 10주년 모델 '아이폰X'과 2018년에 '아이폰XS'가 나오도록 그 이전 모델인 '아이폰7플러스'를 쓰고 있다. 아이폰X에 도입된 페이스ID를 사용해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고, 아이폰XS처럼 OLED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지 않아 화면이 아주 선명하지 않아도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128GB라는 공간은 저장된 사진이 1만 장이 넘어도 남아 돈다. 튼튼한 케이스 덕에 표면에도 흠집 하나 없다.

애플이 아무리 떠들썩하게 신형 아이폰 출시 이벤트를 해도 껌짜하지 않는 이유다. 아이폰 교체 주기가 평균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베이스트리 리서치)가 결코 틀리지 않음이다.

모든 충성 고객들은 자신이 애용하는 제품이 업그레이드되면 기꺼이 지갑을 열 준비가 돼 있다. '호구'라고 불려도 상관 없다. 단, 그 전에 조건은 '혁신'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출시된 아이폰에는 그

데스크칼럼

배수경
국제경제부장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가격만 대폭 올렸다. 그런데도 애플은 "중국 경제 탓이다", "각 나라에서 휴대전화 구매 시 보조금 지급을 막는다" 등 해명에만 급급하다.

애플의 실망스러운 행보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9'에서 애플은 바닥을 보여줬다. 이번 CES에서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5G 시대에 대비한 신제품을 선보이느라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정식으로 참가도 하지 않은 애플은 치졸한 방법으로 행사 참가자들의 이목을 '훔쳤다'. "What happens in Vegas, stays in Vegas(라스베이거스에서 일어난 일은 라스베이거스에 머문다)"라는 유명한 속담을 차용해 "What happens on your iPhone, stays on your iPhone(당신의 아이폰에서 일어난 일은 아이폰에 머문다)"이라는 뜬금없는 대형 옥외 광고로 구글을 도발한 것. 이는 구글의 OS '안드로이드'가 해커들에게 사용자 정보를 흘리고 있음을 비꼰 것이다. 하필 대규모 해킹으로 525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메리어트 호텔 벽에다가

말이다. 굳이 구글의 광고로 도배된 차량이 달리는 모노레일 옆에 이런 광고를 내 걸고 직원들을 보냈다는 건 경쟁업체들을 염탐하기 위해서였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

혁신의 아이콘, 시가 총액 세계 1위 기업으로서 애플의 자존심은 어디로 간 것일까. 아이폰을 필두로 아이패드, 맥컴퓨터, 맥북, 아이팟, 애플워치, 홈팟, 애플뮤직, 애플TV 등 자체 생태계 확장에 급급해 정작 '대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건 아닌지.

얼마 전 애플이 2019 회계 1분기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공급망)들이 총격에 휩싸이는 장면을 세계가 목도했다. 이제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뛰어넘어 '애플 경제권'이라는 더 큰 책임의 무게를 가진 존재가 됐다는 의미다.

"굳이 여러 가지를 다 잘하지 않아도 된다"는 스티브 발머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의 일침을 새겨야 한다. 전 세계를 '윈도' 생태계로 묶으려다 실패한 노장의 경험에서 우리나라 말이다. 아이폰에만 의존하는 것도 무리수이지만 그렇다고 부진한 사업까지 다 끌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고객들이 바라는 것도 많은 것이 아니다. 단 '한 방'이다. '딱' 보고 '훅' 할 수 있는 그 한 방. 거기에 애플 경제권에 묶인 수백만 명의 밥줄이 달렸다. 나 역시 그 '한 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새 아이폰을 사지 않을 생각이다. sue6870@

사설

탈원전 오류 인정하고 제대로 공론화하라

더불어민주당 4선의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청와대·여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자,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주장했다. 정부의 무모한 탈(脫)원전을 놓고 여론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일고 있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11일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 화력발전소와 원전을 조기 퇴출시키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리된 사안으로 추가 논의가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공론화로 결정된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하지만 송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반박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했던 공론화위에서 신한울 3·4호기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설계·부지 조성을 마친 신한울 3·4호기의 7000억 원에 이르는 매출 비용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화력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원전이 장기간 공존해야 한다.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는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중장기 에너지믹스·균형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의 핵심을 짚은 문제 제기다. 문재인 정부가 반핵(反核) 이념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는 탈원전은 어떤 국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청와대가 주장하는 공론은 2017년 10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말한다. 당시 공론화위는 정부가 중단시킨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압도적 찬성으로 재개토록 결정하면서, 원전을 축소하는 에너지정책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신고리 5·6호기 논의에 국한된 위임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월권(越權) 행위였다. 청와대가 사실과 여론을 왜곡한 것이다.

이 정부가 대안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탈원전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고 있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는 원전 설계부터 제작·시공·운전기술·전문인력·부품공급망을 구축해 세계 최고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는 잇따라 실패하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 인력은 중국 등으로 팔려가고 있다. 국가 에너지안보가 심대한 위협을 받고, 앞으로 전기요금 대폭 인상에 따른 산업과 민생의 충격 또한 불가피하다.

최악의 후쿠시마 사고를 겪은 일본이 원전 재가동에 나서고,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이 공약인 '원전의 단계적 축소'를 중단키로 했다. 탈원전 국가인 독일은 전력을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 어리석게도 새로운 먹거리이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전략산업과 최고의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일하는 해의 노래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주도로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군사정변'은 악랄한 독재정치를 지속하다가 결국 비극으로 막을 내렸고, 또 다른 군사정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역사의 아픈 한 부분으로 남았다. 3년간의 군정통치 후, 1963년에 제3공화국을 출범시킨 군사정변 세력들은 집권 초기부터 '반국가행위처벌법', '정치활동정화법' 등을 강력하게 적용하며 독재를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른바 '잘 살기 운동'도 벌였는데 1965년에는 '일하는 해'를 선포함으로써 1년 내내 전국에 '일하는 해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라. 새살림 일깨우는 태양이 떴다. ...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가라! 일하자, 올해는 일하는 해다." 다분히 독재를 위한 '국민총화'의 목적을 띠고 보급한 노래이지만 당시 엄청난 열악한 경제 환경 속에서 아예 일할 의욕을 상실했던 국민들을 설득하여 희망과 의욕을 갖게 한 긍정적인 면도 전

혀 없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벽두에 새삼 '일하는 해의 노래'를 들먹이는 이유는 올해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헬조선'이라고 하지만, 맘만 고쳐먹으면 생각보다 일할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인부들을 고용하여 힘들게 경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노동현장으로 가면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고,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부모님께서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농촌으로 가면 일할 땅과 일할 거리가 있다고도 한다.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어려운 농동을 기피한다면 일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다. 더러 TV에 나오는 대박의 사례들을 보면서 허황한 꿈에 사로잡혀 있다면 평생 실업자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눈높이를 낮춰 땀을 흘리는 '일터'로 나가서 우리 젊은이만이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의 '일하는 해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노경아의 작은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장

서러운 이별 '죽음'

래서였을까, 눈감은 어머니를 보는데, 시집과 함께했던 20여 년의 세월이 한순간 버려진 것 같아 몹시 서러웠다.

"인생은 늘 이별이야. 만남은 이별을 위한 여행 연습이지. 이별을 위한 만남..." 선배의 말에 잠시 위로를 받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의 영원한 헤어짐은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다.

인간사 가장 원초적 문제가 삶과 죽음 이듯 죽음을 뜻하는 우리말은 다양하다. 죽다, 숨지다, 삶(生)을 마감하다, 돌아가(시)다 등 직접적으로 죽음을 나타내는 말은 물론 사망, 타계, 별세, 서거, 사거, 운명(殞命), 작고, 영면, 봉어, 승하 등 한 자어도 손에 꼽고도 남는다.

어디 이쁜인가. 종교에 따라서도 죽음을 표현하는 말은 갈린다. 불교에서는 승려가 사망하면 입적(入寂), 열반(涅槃), 입멸(入滅)이라는 말을 쓴다. 선종(善終)은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줄임말로, 사람이 죽는 것을 뜻하는 가톨릭의 공식 표현이다. 개신교의 '소천(召天)'은 '하늘의 부름을 받는다'는 뜻이다.

나는 죽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눈감다'라는 표현을 주로 쓴다. 충격적이거나 좋지 않은 어감을 후회적으로 표현하는 완곡어법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

니 '눈을 감다'와 '눈을 뜨다'는 우리 삶에 중요한 비유와 관용 표현이다. 누구나 하루를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눈을 감으며 정리한다.

인생도 마찬가지로이다. 태어나 세상의 이치나 원리 등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눈을 떴다'고 말한다. 학문에 눈뜨고, 사랑에 눈뜨고, 현실에 눈뜨기도 한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을 감은 후 다시 뜨지 못하면 세상과 이별한 것이다. 죽음을 뜻하는 '눈감다'와 '깨우치다'는 의미의 '눈뜨다'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세상을 떠나다/뜨다' 역시 완곡어법에 해당한다. '떠나다/뜨다'는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떠난다는 뜻인데, '세상을 떠나다/뜨다'처럼 세상과 함께 쓰이면 '목숨이 끊어졌다'는 의미가 된다. '유명(幽明)어둠과 빛, 즉 저승과 이승)을 달리하다', '불귀(不歸)의 객이 되다', '향천(向天) 등도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관용구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은 큰 행복이다. 뛰는 심장으로 하루를 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왔다. 마치 선물처럼.

jsiysh@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국내 최대 초광대역 주파수의
압도적인 속도

시스템이 관리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독자적인 양자암호기술로 구축한
빈틈없는 보안

세계최초, 대한민국 5G시대 개막
압도적 속도와 철저한 보안을 갖춘 5GX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기술**

